

석사학위논문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에 대한 연구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이 연 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에 대한 연구

Christian Creative Dance A Study on
「That Love」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기독교무용전공

이연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에 대한 연구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기독교무용전공

이 연 호

이연호의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안 신 희 (인)

심 사 위 원 김 남 용 (인)

심 사 위 원 박 영 애 (인)

국 문 초 록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이 연 호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에 대한 연구로서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의 의미와 구조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작품은 연구자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철학을 담았다. 작품의 주제 선정은 인간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의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은 실존론적 의미와 본성 그리고 운명에 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 질문을 망각하게 된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 중 하나는 죽음을 비롯하여 고독이나 무의미와 같이 인간의 실존적 조건과 관련이 있다. 많은 현대인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허무감과 무의미감을 느끼는 ‘실존적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실존주의에서는 ‘죽음, 자유, 고독, 무의미’와 존재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이를 직면함으로써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완전하게 지어졌다. 그러나 사탄의 개입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 완전성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깨지게 된다. 그 죄의 결과는 ‘질병, 정신병, 죽음, 가난, 전쟁, 천재지변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찾아왔다. 인간에 대해 이해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근원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해 유한적 삶에 대한 인간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존주의 심리 치료에서는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 존재가 피할 수 없는 선천적 조건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공허함과 절망감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인간은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존재이다.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은 질병과 죽음 등의 한계와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그 한계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결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며, 인간에게 필요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고 깨닫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절차는 2023년 11월 20일 PM 7:00 양재 M 극장에서 공연된 기독교 창작무용 작품, 「그 사랑」에 관한 것으로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작품의 의도와 내용,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을 분석하는 데는 2023년 11월 20일 양재 M 극장에서 발표된 작품을 촬영한 공연 DVD와 사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작품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실존적 우울증의 개념과 하나님을 통한 구원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실존적 의미에서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존적 심리치료를 살펴보고, 기독교적 입장의 인간과 구원론에 관련된 단행본과 학위논문, 학술지, 성서,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문헌 연구를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기독교 창작무용 , 「그 사랑」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음을 나타내고자 한다. 인간은 스스로 아픔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참 신이자 참 인간’인 예수님이 대신 죽은 사건, 즉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과 참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작품의 주제이다. 인간은 ‘죽음, 자유, 고독, 무의미’와 같은 존재의 궁극적인 문제를 구원자와의 만남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이다. 구성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병든 자의 고통과 세상의 허무함’으로 현실에 만족하고 살다가 욕심이 더해지면서 병과 죽음이라는 올무에 걸리게 되면서 좌절과 절망을 느낀다. 2장은 ‘구원의 만남’으로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단계별로 보여주며 전도자와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나 됨을 보여준다. 3장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였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것을 생각하게 하며,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주요어】 실존적 우울증, 성경적 인간, 구원.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II. 이론적 배경	5
2.1 실존적 우울증의 개념	5
2.1.1 실존적 의미	5
2.1.2 실존적 심리치료	7
2.2 기독교적 구원론	10
2.2.1 성경적 인간	10
2.2.2 구원이란	11
III. 작품 개요	14
3.1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14
3.1.1 안무 의도	14
3.1.2 작품 내용	15
3.2 작품의 형식 및 구조	16
3.3 작품의 구성요소	17
3.3.1 움직임	17
3.3.2 오브제	18

3.3.3 음악	22
3.3.4 의상	25
3.3.5 조명	28
3.3.6 무대 공간 사용	32
 IV. 작품 분석	 34
4.1 제1장 : 병든 자의 고통과 세상의 허무함	34
4.1.1 주제 및 내용	34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5
4.1.3 음악 및 오브제	39
4.1.4 무대장치 및 조명	40
4.2 제2장 : 구원의 만남	43
4.2.1 주제 및 내용	43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43
4.2.3 음악 및 오브제	45
4.2.4 무대장치 및 조명	46
4.3 제3장 : 십자가 그 사랑	49
4.3.1 주제 및 내용	49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50
4.3.3 음악 및 오브제	53
4.3.4 무대장치 및 조명	54
 V. 결론	 56

참 고 문 헌	59
부 록	61
ABSTRACT	63

표 목 차

[표 3-1] 작품의 구조	17
[표 3-2] 오브제 사용	22
[표 3-3] 음악	24
[표 3-4] 가사	24
[표 3-5] 색채 이미지 및 연상 단어	28
[표 3-6] 색채조명에 따른 표정 및 감정	31
[표 3-7] 무대 위치	32
[표 3-8] 무대 공간 사용	33

그 립 목 차

[그림 3-1] 무대 사용	33
[그림 4-1] 이동 경로 1-1	35
[그림 4-2] 이동 경로 1-2	36
[그림 4-3] 이동 경로 1-3	37
[그림 4-4] 이동 경로 1-4	38
[그림 4-5] 조명 1-1	40
[그림 4-6] 조명 1-2	40
[그림 4-7] 조명 1-3	41
[그림 4-8] 조명 1-4	41
[그림 4-9] 조명 1-5	42
[그림 4-10] 조명 1-6	42
[그림 4-11] 이동 경로 2-1	44
[그림 4-12] 이동 경로 2-2	45
[그림 4-13] 조명 2-1	47
[그림 4-14] 조명 2-2	47
[그림 4-15] 조명 2-3	48
[그림 4-16] 조명 2-4	48
[그림 4-17] 조명 2-5	49
[그림 4-18] 이동 경로 3-1	51
[그림 4-19] 이동 경로 3-2	51
[그림 4-20] 이동 경로 3-3	52
[그림 4-21] 이동 경로 3-4	52
[그림 4-22] 조명 3-1	54
[그림 4-23] 조명 3-2	55
[그림 4-24] 조명 3-3	55

사 진 목 차

[사진 3-1] 오브제 비치볼	18
[사진 3-2] 오브제 검은 망사 천	19
[사진 3-3] 오브제 붉은 천	20
[사진 3-4] 오브제 나비 핀	21
[사진 3-5] 검정 의상	25
[사진 3-6] 검정 의상	25
[사진 3-7] 흰 의상	26
[사진 3-8] 흰 의상	26
[사진 3-9] 노랑 의상	27
[사진 3-10] 노랑 의상	27
[사진 3-11] 1장 조명의 변화	29
[사진 3-12] 2장 조명의 변화	30
[사진 3-13] 3장 조명의 변화	31
[사진 4-1] 이동 경로 1-1	35
[사진 4-2] 이동 경로 1-2	36
[사진 4-3] 이동 경로 1-2	37
[사진 4-4] 이동 경로 1-2	37
[사진 4-5] 이동 경로 1-3	37
[사진 4-6] 이동 경로 1-4	39
[사진 4-7] 오브제 불빛 나는 비치볼	39
[사진 4-8] 오브제 검은 망사 천	39
[사진 4-9] 조명 1-1	40
[사진 4-10] 조명 1-2	40
[사진 4-11] 조명 1-3	41
[사진 4-12] 조명 1-4	41
[사진 4-13] 조명 1-5	42
[사진 4-14] 조명 1-6	42
[사진 4-15] 이동 경로 2-1	44

[사진 4-16] 이동경로 2-1	44
[사진 4-17] 이동경로 2-1	44
[사진 4-18] 이동경로 2-1	45
[사진 4-19] 오브제 붉은 천	46
[사진 4-20] 조명 2-1	47
[사진 4-21] 조명 2-2	47
[사진 4-22] 조명 2-3	48
[사진 4-23] 조명 2-4	48
[사진 4-24] 조명 2-5	49
[사진 4-25] 이동 경로 3-1	51
[사진 4-26] 이동 경로 3-2	51
[사진 4-27] 이동 경로 3-3	52
[사진 4-28] 이동 경로 3-4	52
[사진 4-29] 오브제 나비 핀	53
[사진 4-30] 조명 3-1	54
[사진 4-31] 조명 3-2	55
[사진 4-32] 조명 3-3	55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인류는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 이해의 시작일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의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간 이해가 계속되어야 함에도 현대인들은 자주 이 질문을 망각하고 현실의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실존론적 의미와 본성 그리고 운명에 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에 관한 질문은 가장 자연스러우며, 신 앞에 있는 존재로서의 종교적 인간학을 출발로 기독교적 물음으로 전개될 수 있다.¹⁾

본 연구는 기독교 예술 창작 「그 사랑」에 관한 연구이다. 2023년 11월 20일, M극장에서 시연한 작품 「그 사랑」은 이런 질문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안의 원천이다. 현대인의 심리적 문제 중에는 죽음을 비롯하여 고독이나 무의미와 같이 인간의 실존적 조건과 관련된 것이 많다. 많은 현대인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허무감과 무의미감을 느끼는 ‘실존적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런 인간은 물질만능주의로 가고 인생의 의미를 ‘보이는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나 실존적 조건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의 형상대로(창1:27)”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적 인간관의 핵심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욕구, 양심, 도덕적인 인식과 책임,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영

1) J.Moltmann(전경연 외 1인 공역).(1973). 『인간』. 서울: 향린사, p.158.

혼의 적합한 기관인 육체적인 몸,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인간은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가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이다. 실존주의는 인간 존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속성인 실존에 대한 탐구를 기본으로 하며 ‘죽음, 자유, 고독, 무의미’와 같은 존재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이를 직면함으로써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하는 실천의 철학이다.²⁾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는 “언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행동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며,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실존론적 철학은 자유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철학이며, 성실과 용기를 무기로 삼아 현실을 직시하고 사물을 철저하게 통찰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철학이다.³⁾ 자유의 핵심에는 선택이 있으며, 선택의 핵심에는 행동이 있다. 본 논문은 현대인의 ‘실존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무의미의 삶을,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인간으로서 실존적 존재를 깨닫고 참 뜻을 선택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간의 참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구원을 통한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깨달은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자유가 있음을 알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참 인간성의 회복, 그리고 구원이 있음을 알리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은 한계와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그 한계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결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고 깨닫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권석만.(2015). 『현대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서울: (주)학지사, p.307.

3) 케리 콕스(지여울 역).(2009).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 서울: 황소걸음출판사, p.18.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23년 11월 20일 PM 7:00 양재 M 극장에서 공연된 기독교 창작무용 작품, 「그 사랑」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작품의 의도와 내용,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분석한 연구이다.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을 분석하는 데는 2023년 11월 20일 양재 M 극장에서 발표된 작품을 촬영한 공연 DVD와 사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작품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실존적 우울증의 개념과 하나님을 통한 구원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실존적 의미에서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존적 심리치료를 살펴보고, 기독교적 입장의 인간과 구원론에 관련된 단행본과 학위논문, 학술지, 성서,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문헌 연구를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실존적 우울증의 의미와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실존주의 철학과 실존적 심리치료를 살펴보고 기독교적 입장의 구원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작품 개요로 기독교 무용창작 「그 사랑」에 나타난 안무 의도와 작품 내용, 작품의 형식 및 구조와 구성요소를 설명하였다. 작품은 총 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장에서는 현실에 만족하며 살던 인간이 병들게 되면서 고통과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내용과, 2장은 괴로워하던 주인공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을 나타내며, 3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노래하며 고백함을 표현하였다. 1장은 현대적인 도시의 느낌으로 검정 자켓을 입고 현대적 느낌으로 춤을 추며 오브제를 사용해 세상의 돈, 권력, 명예를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장마다 적절한 오브제를 사용하여 감정과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구성하였다. 2장과 3장에서 의상의 변화로 1장과의 대조적 분위기와 감정을 표현하였다.

Ⅳ장은 작품 분석으로 양재 M 극장에서 시연한 기독교 무용창작 「그 사랑」의 공연을 토대로 주제 및 내용,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음악과 오브제 그리고 무대장치 및 표현 형태의 특징들을 설명하였고, V장 결론에서는 기독교 무용창작 「그 사랑」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복음적 메시지와 그 의미를 정리

하고 인간은 자기 존재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실존적 우울증의 개념

2.1.1 실존적 의미

실존적 의미는 실존적 심리치료의 한 접근인 의미요법을 창안한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 1905~1997)에 의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역사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은 본질 탐구의 철학, 즉 합리주의 철학을 반대하고 개개의 단독자인 현실적 인간 즉 현실의 자각적 존재로서 실존(existence, existenz)의 구조를 인식하고 해명하려고 하는 철학사상이다.⁴⁾

실존주의 개념은 ‘실존’이라는 단어에 있다. 실존이란 개별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느끼고, 묻고, 깨달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로서 실존주의는 바로 이 실존을 다른 무엇이 아닌 ‘인간 존재’에 사용함에 있다. 본질이 실존에 앞서는 사물들과 달리 인간에 있어서 실존은 본질에 앞서며, 그렇기에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실존은 정적인 ‘본질(本質)’이 아니고 ‘존재 능력(Sinkonnen)’이다.⁵⁾ 실존주의자들은 이전의 관념론자들과는 달리 형이상학보다 윤리관이나 인간론에 주안점을 두고 사색했기 때문에 본질보다 실재를 중요시했다. 중점적으로 논하는 실재는 존재자 전반의 실재가 아닌 인간의 실재, 즉 개인의 실존이었다. 그들의 주요 과제는 그러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탐구하는 일이었고, 그 실존에 대한 물음은 현실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었다.⁶⁾ 이 세상의 본질이나 이치,

4) 권석만.(2015), 전계서, p.313.

5) 황다운.(2021). “실존주의와 인간묘사 - 실존주의의 휴머니즘 관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p.4.

6) 김종두.(2014).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사상과 현대인의 자아 이해』. 서울: 새물결플러스, p.102.

관념이 무엇이냐 찾는 것보다 개개인의 실존적인 삶, 그 삶의 태도 등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간의 본질은 자율성과 독창성을 소유한 하나의 인격체가 만인에게 공통된 그러한 인간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객체가 자기 자신을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⁷⁾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핵심 철학은 ‘인간의 자유’ 즉, ‘개인의 자유’였다. 처음에는 실존주의로부터 개인의 자유라는 이념이 도출되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도구로써 실존주의가 사용되었다. 이같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궁극적으로 휴머니즘이다. 곧 ‘자기 사랑’이고 동시에 ‘인간 사랑’이었다.⁸⁾

실존주의란 인간 본질의 보편성이 아닌 인간 실존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철학자로, 키르케고르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르트르는 신과 그 신의 창조성을 거부함은 본질로서 먼저 주어지는 인간 본성을 거부한다는 맥락에서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실존주의의 기본 명제인 ‘인간에게 있어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라는 말을 더욱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⁹⁾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의 대표는 키르케고르다. 그는 ‘불안, 우울, 절망’이라는 감정의 개념화와 함께 단독자로서의 인간의 자유와 그 실천으로서의 ‘진정성’에 의의를 두었다. 그의 실존 사상은 ‘인간의 정신적 가치와 내면성, 주체성, 고유성, 개별성’ 등을 중시하는 것이었다.¹⁰⁾ 그는 이 세상을 과거에 우선적으로 자리했던 본질로부터가 아니라 뒤에 있던 실존으로부터 사후적으로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이에 따라 인간은 개별의 모든 인격을 경주하여 객관적이고 무감각하지 않게 자신의 실존을 해명해야 함을 일깨웠다. 그가 전개한 내용 대부분이 기독교로 향하고 있다.¹¹⁾

실존주의 철학은 세계대전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이성, 역사의 발전, 신의 권능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하였다. 실존철학자들의 주장은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인간의 ‘실존’을 가장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점

7) 김종두.(2014), 상계서, p.102.

8) 박영규.(1996). 『철학이 뭐꼬?』. 서울: 가람기획, p.326.

9) 황다윤.(2021), 전계서, p.10.

10) 상계서, p.12.

11) 황다윤.(2021), 전계서, p.14.

을 지닌다. 실존(existence)의 어원은 ‘ex-sistere’로서 ‘도드라지다(stand-out)’ ‘나타나다(emerge)’라는 의미를 지니며 생성(becoming)의 개념을 포함한다. 실존의 의미는 본질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본질(essence)은 어떤 실체를 다른 것과 구별하게 만드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속성을 뜻한다. 이에 반해, 실존(existence)은 한 실체가 지니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속성으로서 그 실체가 세상과 관계 맺는 독특한 방식을 의미한다.¹²⁾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의 철학은 그리스 정신이 오랫동안 몰두했던 인간이 사생활과 공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 존재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근원적인 열망, 곧 자신에게 좋은 것,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열망을 지닌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자기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¹³⁾

2.1.2 실존적 심리치료

실존주의는 인간 존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속성인 실존에 대한 탐구를 기본으로 하며 ‘죽음, 자유, 고독, 무의미’와 같은 존재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이를 직면함으로써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하는 실천의 철학이다. 이에 기반하고 있는 실존적 심리치료는 자신의 실존 상황을 직면하여 인식하고 자기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실천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다.¹⁴⁾

인간은 죽음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안의 원천이다. 현대인의 심리적 문제 중에는 죽음을 비롯하여 고독이나 무의미와 같이 인간의 실존적 조건과 관련된 것이 많다. 많은 현대인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허무감과 무의미감을 느끼는 “실

12) 권석만.(2015), 전제서, p.313.

13) 이윤경.(2014).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바탕으로 한 무용창작작품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5. 재인용.

14) 상계문.

존적 우울증”에 빠져 있다. 우울증은 불안장애와 함께 매우 흔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장애이다. 보통 감기처럼 쉽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종종 수개월에서 수년간이나 지속되는 만성적인 질병이 될 수 있고, 심각한 사회적 장애,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스러운 질병이기도 하다.¹⁵⁾

실존적 심리치료에서는 “실존적 우울증”과 같은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실존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치료하는 접근 방법이다. 심리치료에서는 자신의 실존 상황을 직면하여 인식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실천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다. 인간의 주관성과 자유를 중시한다. 그러나 실존적 심리치료 입장에서 심리적 문제는 자신의 실존적 조건을 직면하지 못한 채 회피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인간은 ‘죽음, 고독, 자유, 무의미’라는 실존적 조건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수용함으로써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¹⁶⁾

실존적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가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실존적 고독 역시 불가피한 실존적 조건이지만 이를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많은 현대인이 실존적 조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채 타인과 사회에 의해서 부과된 피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실존적 심리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실존적 상황을 자각하고 자신의 현실적 문제를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창의적으로 추구하는 진실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¹⁷⁾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의 자유, 책임, 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각자 고유성을 지니는 개인은 자기 행동과 운명의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존주의에서 인간은 자기 인식 능력을 지닌 존재로 본다. 자기 인식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해 성찰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인간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15) 권석만.(2017).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p.301.

16) 권석만.(2015), 전개서, p.307.

17) 권석만.(2015), 상개서, p.308.

생각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에 근거해 자기 행동을 선택하며 그러한 선택의 결과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자신의 실존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수록 자유가 증대되며 더욱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은 실존적 불안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인간이 처한 실존 상황의 주된 네 가지 특성은 죽음(유한성), 고독(분리성), 무의미(무근거성), 자유(불확실성)이다. 자신의 실존적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의 실존적 불안이다. 그리고 인간은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지닌 존재이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인생의 방향키와 같은 것이며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다.¹⁸⁾

인간 존재가 피할 수 없는 선천적 조건 가운데 무의미의 문제를 인간 실존의 근본 문제로 본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다. 그의 의미요법은 내담자가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 공허감과 절망감을 극복하도록 돕는 치료적 접근이다. 프랭클은 무의미와 공허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실존적 공허감으로 인해 혼돈 경험을 겪는다고 보았다.¹⁹⁾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반영해 보고, 자신들의 경험을 구조화하기 위한 일관된 해석의 틀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존적 의미는 단지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발견하고자 원하는 것이다. 정신병리를 앓은 환자 가운데 상당한 비율이 무의미함이나 실존적 고민을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빈 알롬(Irvin Yalom, 1931~현재)은 “삶과 죽음은 함께 가는 것이며, 치료의 핵심은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삶에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은 ‘실존적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인간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18) 권석만.(2015), 상계서, pp.316~317.

19) 조성훈.(2007). “실존적 의미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05.

2.2 기독교적 구원론

2.2.1 성경적 인간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 가장 으뜸 되고 뛰어난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창2:7).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마6:26-30).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였다(시8:3-8).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족감과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를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창3:1-5; 롬5:12-19) 고통과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롬5:12, 17). 죽음은 이렇게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창3:16-24; 고전15:22). 성경은 인간이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또한 인간이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롬3:23),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사1:5-6)임을 강조한다. 이런 절망적 상태의 인간이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고후5:17; 엡2:5; 요일3:2-3).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롬3:21-22).²⁰⁾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서 구원이 약속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공통적인 교리이다.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형상을 초월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의 친아들 주 예수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성도는 구원받으며 그 확정적 각 성도의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새로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진다.²¹⁾

20) 김창영.(2011).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pp. 276, 487.

21) <https://ko.wikipedia.org/wiki/구원론>

2.2.2 구원이란

구원은 사전적 의미로서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는 행위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이다.²²⁾ 구원(Heil)이라는 말은 구원론에서 중요한 핵심 용어로서 기독교가 하나님에 관한 선포와 가르침에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를 통해 일어나는 인간과 세계에 관한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요한복음 3:16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서 영생을 주셨다고 말한다.

구원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인도 게르만 언어의 Kailo에서 헬라어 $\sigma\omega\tau\eta\rho\iota\alpha$ 와 라틴어 *salus*가 왔는데, 이것의 원래적인 의미는 ‘매우 완전함’이다.²³⁾ 기독교적 구원 이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약성경의 기원을 두는데 예수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혹은 ‘너희를’, ‘나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한’ 구원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으며,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가 젓값으로 주어졌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를 위한’이라는 말을 간과하고서는 참된 기독교론적인 구원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를 위한 구원’은 경륜적 삼위일체론과 연관이 있다. 여기에서 성자의 사역은 창조의 세계를 위한 구원에 있다. 구원을 위해 성자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심판을 대신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고 인간을 구원하신다. 구원은 죄의 용서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한다.²⁴⁾ 구원의 기독교론적인 연관성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참여가 인간 안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구원론적인 기독교론이다. 이런 면에서 모든 기독교론은 구원론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에게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간에게 개방시켜 인간의 삶의 현실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없이 오직 예수그리스

22) 김창영.(2011), 전계서, pp.55~56.

23) 배경식.(2012). 『구원론-구원론의 본질과 다양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p.26.

24) 김균진.(1984). 『기독교조직신학』.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p.249.

도 안에서와 그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역사에 따라 구원이 보충된다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한 인간의 죄악 된 관계 단절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만족시킨다는 희생제물에 관한 사고가 내재하여 있다. 안셀름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이중의 빛을 지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빛을 졌으며 또한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써 이중의 빛을 지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탄에게 지은 이 빛은 인간이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한 신이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인간은 죄악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빛을 온전히 갚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인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²⁵⁾ 이것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과 사탄에게 그 이중의 빛을 되갚음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주는 것이 구원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와 세계 안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사랑으로 보인다. 인간이 이중의 빛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말이다. 인간이 사망 아래, 죄 아래, 질병 아래 고통받고 있었다. 인간이 죄에서의 자유함이 없이는 구원을 생각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 그 구원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인 예수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바르트는 구원을 선택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신론에서 선택론을 복음의 총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선택의 범위를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까지 확대시켰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셔서 자유스럽게 사랑하는 자로 여기셨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를 앞에 기초를 둔다. 예수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선택받은 인간이다.²⁶⁾ 구원이란 개인의 삶 안에서 신앙을 통한 은총이나 의로움이 된다.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은 인간 편에서는 선택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된다.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의인이자 죄인임”을 동시에 말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 칭하셨으나 인간 편에서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 의로워진 인간은 신앙으로부터 얻어진 그 힘으로 사랑의 사역을 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와 동료 인

25) 배정식.(2012), 전계서, p.32.

26) 상계서, p.33.

간 그리고 세계 안에 그 사역이 확증된다.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사랑의 열매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 5:22-23)”는 구원을 이루는 성령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음을 성경을 말하고 있다.

구원받은 인간은 성도라고 불리게 된다. 이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이 힘쓰도록” 신약의 바울 사도는 권면한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3:18 절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자라야 함을 언급한다. 죽음에 직면했던 인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고,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상태로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간은 실존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며, 사망을 이기게 되었다. 성도들이 현세대에 머무는 동안 더욱 경건하며,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 1:22)”

성경은 성도들의 현재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거룩한 삶을 미래로 넘기지 않는다. 비록 성도들은 현재 완전하지 않고, 또한 완전할 수 없지만,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가야 함을 알아야 한다.²⁷⁾

²⁷⁾ 토마스 R. 슈라이너(조호형 역).(2013). 『구원의 확신과 경주』. 사)기독교문서선교회, p.89.

Ⅲ. 작품 개요

3.1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3.1.1 안무 의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1:27)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인류는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 놓이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이 땅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성경적 가정 아래 본 연구자는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을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질병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시각화하여 작품에 나타내고자 한다. 성경은 사망을 이기는 길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1-2)

인간은 죽음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안의 원천이다. 인간 존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속성인 실존적 요소인 죽음, 자유, 고독, 무의미와 같은 존재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이를 직면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성도로 거듭나며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에서 주인공 한 명의 여인의 시각으로 스토리를 진행하였다. 복음적 메시지를 시각화하여 작품을 완성함으로 기독교적 복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인의 심리적 문제 중에는 죽음을 비롯하여 고독이나 무의미와

같이 인간의 실존적 조건과 관련된 것이 많다. 현대인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허무감과 무의미감을 느끼면서 그 허무감을 보이는 물질을 통해 채워보려고 시도한다. 이런 시도는 사람들을 더 물질만능주의로 가게 만든다. 질병과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영역이다. 이 작품은 인간은 누구나 그 현실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느껴지는 좌절, 절망, 우울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런 인간은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며, 절대자인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질병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으로 이르는 여정을 담담히 그려감으로 죽음을 이긴 예수님께로 죄인이 나갔을 때 얻게 되는 참 평안과 구원을 알리고자 한다. 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인간의 변화는 죄에서 자유함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과정임을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을 통해 시각화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3.1.2 작품 내용

2023년 11월20일 시연한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은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한다.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며 욕심껏 살다가 질병이 찾아오게 된 한 여인의 시각에서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던 여인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 이 질병은 죽음으로 엄습해 오고, 그 공포는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고 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돈, 권력, 명예도 질병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고 좌절과 우울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이 우울 속에 있던 여인은 자신을 어두운 삶에서 건져 줄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시작한다. 그 과정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믿음을 갖게 된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해 나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인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질병의 고침도 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

3.2 작품의 형식 및 구조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의 장면구성을 위해 춤과 음악, 의상 무대 디자인 등을 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야기의 전개와 감정의 전달을 위해 각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하고 구성하였다. 장면구성을 위해 이야기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주제를 먼저 결정하였다. 본 작품의 연구자는 「그 사랑」을 통해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적 구원만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임을 확신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독교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제에 맞는 음악과 춤 스타일을 선택하였다. 현대적 느낌의 현대 무용음악과 가스펠을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춤 스타일도 현대 무용과 창작 한국 무용을 함께 사용하였다. 춤의 움직임, 무대배치, 조명 등을 통해 이야기 흐름을 전달하고자 하였고, 감정의 전달을 위해 의상과 오브제를 사용하여 작품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강화하였다.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마다 상징적인 오브제를 사용하였고, 조명과 의상으로 극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 장별로 주제가 있고 주제에 맞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다. 한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인공의 시각에서 직선으로 연결되는 진행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의 오브제를 사용하였다. 불빛이 나오는 비치볼과 검은 천, 붉은 천, 나비 핀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좀 더 극적인 부분을 상징과 강조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조명은 작품의 주제와 의도를 강화하는 도구로서 예술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1장의 도입 부분에서는 도시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조명을 사용하였고, 비치볼이 보일 수 있는 약한 조명을 사용하였다. 여인의 절규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안개가 깔린 어두운 바닥이 보이게 사용하였고, 2장 십자가를 상징하는 천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핀 조명을 사용하여 집중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3장에서는 밝은 톤의 여러 가지 조명을 사용해 분위기에 따라 점차 추가

하여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의 조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감성에 맞는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편집한 음원을 사용하였다. 음악은 1장에서 ‘spell-TAD’의 현대 무용 음악과 ‘The Hill Of The Wind (바람의 언덕)’ 이정표 곡을 사용하였다. 2장에서는 Zack Hemsey가 작곡한 ‘End of an Era’와 마지막으로 3장은 가스펠 곡인 이권희가 작곡, 작사한 ‘나를 일으키시네’를 사용하였다.

[표3-1]. 작품의 구조

장구분	소제목	내용	시간	오브제
1장	병든 자의 고통과 세상의 허무함	인간의 탐욕과 보이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살다가 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분노와 좌절을 그렸다.	5'09	비치볼, 검은 망사 천
2장	구원의 만남	전도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4,41	붉은 천
3장	십자가 그 사랑	여러 명의 무용수가 참여하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감정과 극의 크라이막스를 연출하였다.	4,24	나비 핀

3.3 작품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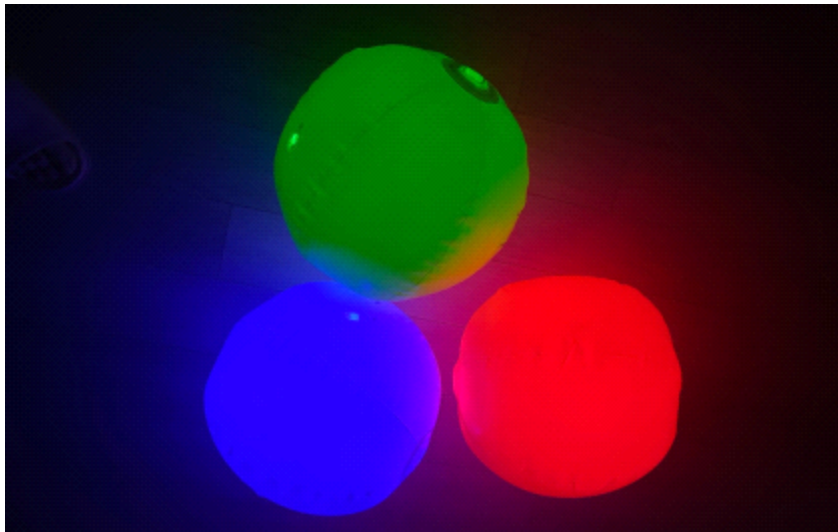
3.3.1 움직임

1장에서 춤의 주요 움직임 요소는 현대무용의 몸짓을 이용하여 움직임의 질감을 형성하였다. 현대 무용은 도시적이고 어두우면서도 격한 동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다. 인간의 탐욕을 표현할 수 있다. 빠른 비트에 맞추고 무용수들의 특징들을 살려 움직임을 형성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같은 동작과 독창적인 동작을 사용하였고, 함께 모이기도 하고 겹쳐 눕는 형태도 사용하였다. 그래서 현대무용은 차가운 도시의 현실적 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움직임과 서로 경쟁하듯 자신을 드러내려는 감정선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2장에서는 붉은 천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무용수가 가볍지 않은 몸짓으로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동작으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했다. 3장은 창작 한국 무용의 움직임을 사용한 곡으로 구성하였다. 전통 한국 무용은 호흡 중심의 동선과 춤 선으로 이루어진다면 창작 한국 무용은 한국 무용의 전통 틀 안에서 현대 무용을 재해석하고 창작한 형태이다. 지정된 음악과 춤사위가 있는 전통의 춤과는 달리 창작무용은 자신만의 표현과 색을 중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5음계가 아닌 8음계와 박자가 전통과 다른 음악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 무용의 호흡과 춤 선에 현대적 감각의 한국 무용 선율을 아름답게 어울릴 수 있다. 또한 3장에서는 가스펠 곡에 일상의 영감에서 시작된 개인의 감정들을 개인만의 시선과 호흡, 움직임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가스펠 곡, ‘나를 일으키시네’에 맞춘 움직임으로 활용하였다.

3.3.2 오브제

[사진 3-1] 오브제 불빛 나는 비치볼



프랑스어로 ‘물건’이라는 뜻의 오브제는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인테리어나 장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본다.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에서는 불빛이 나오는 비치볼과 검은 천, 붉은 천, 나비 핀 등의 오브제를 사용하였다. 1장에서는 불빛이 나오는 비치볼은 세상의 돈, 권력, 명예를 상징한다. 눈에 잘 띄는 형태로 탐스럽기도 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상징화하려고 했다. 여러 색을 낼 수 있는 비치볼은 신기하기도 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거리에 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화려한 불빛은 시선을 끌기에 적당했다. 성경 창세기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던 것처럼 유혹적인 모습의 연출을 유도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 창3:6

[사진 3-2] 오브제 검은 망사 천



또, 검은 망사 천을 사용하였다. 망사 천은 투명과 불투명을 번갈아 가며 짜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천이다. 그래서 이 천을 통해 사물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천이다. 서서히 다가오는 망사는 가까이 올 때까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천천히 조여오는 심리적 압박감을 나타낼 수 있고 검은색은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한다. 서서히 다가오는 망사 천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관하다가 그 천에 단단히 묶이는 심리적 압박감을 연출하려 했다. 넓게 펼쳐있는 망사 천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로 뭉친 망사 천은 단단한 밧줄 같은 역할을 한다. 폭 120cm에 9m 정도의 길이로 긴 망사 천은 검은색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사용해 점점 웅아매 오는 듯한 느낌과 인상을 주기에 적절한 오브제이다.

[사진 3-3] 붉은 천



2장에서 오브제로 긴 붉은 천을 사용한다. 폭 120cm에 길이 11m이다. 이것은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연출했다. 붉은색이 주는 이미지는 출애굽 사건 당시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를 연상시킨다(출12:7).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통해 인도해 내는 사건이다. 당시 애굽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사용하

기 좋은 자원이었다. 그냥 순순히 보낼 리 없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다. 마지막 재앙이 집안의 첫째 자녀가 죽는 사건이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바르는 예식으로, 피가 묻어 있던 문설주의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12:23

그 어린양, 장자의 목숨을 살게 한 그 어린양의 피는 신약의 예수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본체가 예수그리스도이다. 붉은색의 천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화한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벧전1:19

[사진 3-4] 나비 핀



3장에서 오브제는 나비 편이 사용되었다. 나비 모양의 편을 사용하여 손가락에 끼우고 춤을 추다가 중간 부분에서 머리에 꽂는다. 나비의 상징적 의미는 ‘사랑과 자유’이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한 나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로운 삶을 상징한다. 특히 손에 들고 있다가 머리에 꽂는 것은 나비와 한 몸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 새사람이 된 인간은 참자유를 누린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을 만난 인간은 참자유와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비의 생애에서 변형하는 특성은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상징한다. 성장한 나비는 사랑의 완성뿐 아니라 믿음을 나타낸다.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은 소속 자체가 달라진다. 나비 모양의 편을 사용하고 더 가벼워 보이는 깃털을 사용해 나비 모양을 확대하는 효과와 가벼우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더했다. 이 오브제는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변화와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

[표 3-2] 오브제 사용

장구분	오브제	상징성
1장	비치볼	돈, 권력, 명예
	검은 망사 천	죽음, 질병을 상징
2장	붉은 천	예수님의 보혈
3장	나비	사랑과 자유

3.3.3 음악

예술은 시대의 정서를 담고 있다. 무용에서 음악은 그 시대의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김은수는 “무용은 움직임과 음악이 결합하여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표현예술이다.”²⁸⁾ 라고 했다.

기독교 무용창작, 「그 사랑」에서 음악은 그 내용과 감정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중심 요소이다. 1악장에 사용한 음악 ‘spell-TAD(2’ 30)’는 현대무용에 적합한 비트 위주의 음악으로 작곡되었다. 이 곡에 이정표가 작곡한 ‘바람의 언덕(The Hill Of The Wind)(2’ 43)’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빠른 비트와 함께 뒷부분을 구슬프면서도 우울한 분위기의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여인의 좌절한 감정선을 끌어냈다. 앞부분의 빠른 비트의 사용은 급박하게 변하는 도시의 삶을 현대 감각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2장에서는 Zack Hemsey가 작곡한 ‘End Of An Era(3’ 14)’ 곡을 사용하였다. 이 곡의 특징은 2분 정도 낮은 분위기로 서서히 끌고 가다가 후반부부터 16비트마다 점점 고조되는 오케스트라를 사용하였다.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에서 여인이 가지는 감정의 단계가 고조되듯 음악이 함께 이끌어가기에 충분하였다. 그 부분에 첼로연주의 ‘주기도문(1’ 20)’ 앞부분을 연결하여 2장을 마무리한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인이 전도자와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을 찬양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의미한다. 차분한 분위기의 첼로연주는 주기도문 송을 더 거룩한 분위기로 만들어 준다. 3장은 가스펠 곡 ‘나를 일으키시네(4’ 16)’를 사용하였다. 작곡, 작사에 이권희, 노래는 심은영이 불렀다. 가사가 있는 곡의 특징은 순수한 음악 이외에 언어가 주는 감정이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악은 리듬, 선율, 화성, 형식, 빠르기, 다이내믹, 음색 등 전통 음악 구성 요소를 갖춘 무용음악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결합하여 다채로운 분위기를 묘사한다. 음악을 통해 인간은 ‘기쁜, 신난, 슬픈, 화난, 조용한, 잔잔한 등’ 감성을 가질 수 있다.²⁹⁾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에서 이런 음악의 다이내믹한 구성과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율로 총 3장을 구성하였다.

28) 김은수.(1996). 『무용음악의 이해』. 서울: 삼산각, p.71.

29) 김은수.(1996), 상계서, p.122.

[표 3-3] 음악

장구분	음 악	시 간
1장	spell-TAD+바람의 언덕(The Hill Of The Wind)	05분 09초
2장	End Of An Era(3:14)+주기도문	04분 41초
3장	‘나를 일으키시네’	04분 24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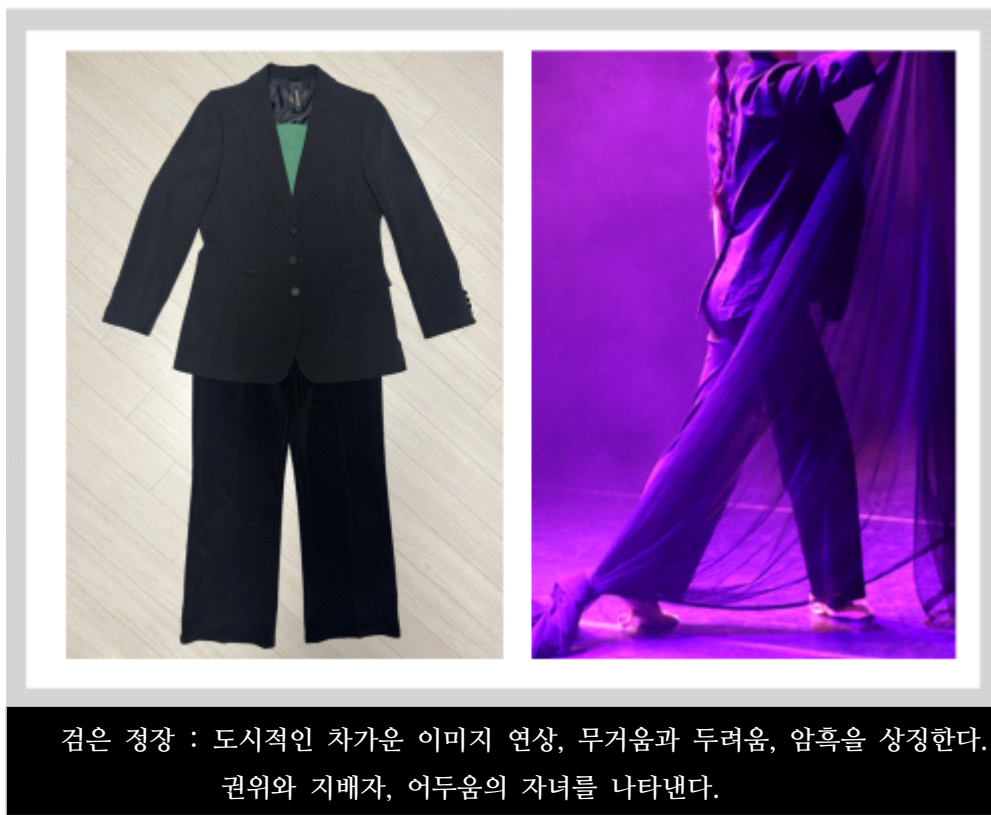
[표 3-4] 가사

“나를 일으키시네”-이권희	
나의 노래 들리나요, 가득 고인 눈물도 보이나요, 많이 힘들었죠. 주께 돌아오기가 세상 끝에 서 있던 나였기에 아픈 시간들 힘겨웠던 날들 지쳐 쓰러진 나를 잡아 줄 이 없을 때 피 묻은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분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내 눈물도 내 아픔도 모두 닦아 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오신 분 하늘 보좌 다 버리고 날 위해 오신 분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으리 생명을 내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못 박히신 그의 손이 나를 일으키네.

3.3.4 의상

[사진 3-5] 1장 검정 의상

[사진 3-6] 검은 의상



무대의상은 일상복과는 달리 무대예술의 한 요소로서 특정한 무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 무대예술의 장르에 따라 의상의 디자인과 색상이 달라지며 일상복과 달리 춤추기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고안되어야 하지만 기독교 무용창작 「그 사랑」에서 의상은 1장에서 현대인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검정 재킷과 검정 바지를 입었다. 평상복으로 사용되는 재킷을 사용했다. 일상생활 그대로의 모습을 무대로 옮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는 색이다. [표3-3]에서 검은색의 이미지는 무거움, 두려움, 암흑, 공포, 죽음, 권위 등을 상징한다.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보호함, 신비감을 주기도 하지만 이 작품에서 세련되지만 무거움과 권위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사진 3-7] 2장 흰 의상

[사진 3-8] 흰 의상



2장에서 전도자는 흰색의 의상으로 등장한다. 흰색은 보편적으로 깨끗함과 연결되어 있다. 순결과 정직을 나타낸다. 전도자의 강직함을 나타내며 정의감이 넘치는 이미지가 있다. 흰 바지와 흰 윗옷에 금색, 분홍, 초록이 함께 들어간 무늬가 있는 쾌자를 입었다. 활동하기에 편한 바지와 위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쾌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대변한다. 2장과 3장은 같은 의상으로 사용했다. 그 주제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진 3-9]

[사진 3-10] 3장 노랑 의상



노랑 의상 : 밝음과 활기찬, 기쁨을 나타내며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나타낸다. 빛의 자녀로의 삶을 표현한다.

2장에서 주인공 무용수가 입은 옷은 크림색 치마와 노랑 저고리이다. 창작 한국 무용에 적합한 스타일로 실크 원단으로 만든 윗옷과 크림색을 매치해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노랑은 가장 밝게 느껴지는 색이기에 서양에서는 태양을 상징한다. 태양의 신 아폴로의 색이라고 믿는다. 노랑은 밝고 활기찬 색상으로 기쁨과 활력을 상징하며, 시나 소설에서 노란색 꽃, 노란빛 등은 주인공의 기쁨과 활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 무용창작, 「그 사랑」에서 마무리인 3장은 노랑 옷의 주인공 무용수와 3명의 무용수가 같은 옷을 입는다. 그리고 전도자 역의 무용수는 하얀색의 쾌자를 입는다. 이는 구원자를 만남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 환희와 밝음을 나타낸다. 심리적으로 구원자를 만난 자신감의 상승을 보여준다. 1장의 검정 옷과 대조되는 색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극 전개상 힘들었던 주인공이 기쁨으로 변하는 감정의 변화를 그

대로 나타냈다.

[표 3-5] 색채 이미지 및 연상 단어³⁰⁾

색상	이미지	연상단어
검은색	무거움, 두려움, 암흑, 공포, 죽음, 권위 등	성직자, 지배자, 간부들의 색, 죽음을 애도하는 색
흰색	밝음, 승고, 순결, 단순함, 순수함, 깨끗함	청결, 위생, 정직, 고독, 공허, 심리적으로 감정이나 사고를 정화해 주는 역할, 해방감
노란색	밝음, 활기찬, 기쁨, 활력,	심리적으로 자신감과 낙천적인 태도, 지식이나 지적 능력

3.3.5 조명

무용 예술은 인간의 사상, 관념, 감각, 감정, 정서 등이 음악의 박절과 자극, 그리고 복식, 조명, 장치와 같은 미학적 배경에 힘입어 가며, 인체의 움직임으로 특정의 주제와 내용이 부조되고, 그 의미가 전달되는 공간적, 시간적 극장 예술의 한 영역이다. ³¹⁾ 그중 조명은 단순한 장치나 의상의 보조수단이나 시각적으로 무용의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닌 무용의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시각 표현 매체이다.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에서 사용한 조명은 적색, 등색, 황색, 녹색, 청색, 자색의 기본색을 사용했고 여러 각도와 채도로 비추면서 작품의 분위기와 감정을 전달하였다.

30) 박연선 외 1인.(2007). 『색채용어사전』. 예림.

31) 이장원.(2010). “무용공연에서 무대 조명의 활용방안.” 『전기의 세계』, 59(2):33.

[사진 3-11] 1장 조명의 변화



1장의 도입 부분에서는 도시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조명을 사용하였고, 청색 계열의 색채조명을 사용해 냉랭하면서도 불안을 나타내었다. 비치볼이 보일 수 있는 약한 조명을 사용하였다. 검은 망사 천으로 묶이는 부분에서 ‘자색 조명’을 사용함으로 여인의 불만족, 고뇌, 불안 음울함을 나타내었다. 여인의 절규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안개가 깔린 어두운 바닥이 보이며 황색 조명으로 무대 상부에 설치하여 연출되는 연기면 포인트에 비춤으로 여인의 고뇌, 불만족, 불안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었다. 색채는 인간의 심리와 결부되어 무용의 표현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그림 3-11]을 참고하여 보면 1장의 조명 색감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사진 3-12] 2장 조명의 변화



2장 십자가가 등장하는 길을 따라 핀 조명을 사용함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천의 진행 방향으로 조명이 먼저 비춤으로 그 길로 인도하는 듯한 연출을 하였다. 등색을 사용함으로 활동성과 정의감을 부여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전도자가 주는 이미지와 십자가 천을 들고 가는 사명의 길에서는 후방에서 길게 비치는 조명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사명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전도자와 여인이 만나는 장면에서 무대 상부 중앙에 은은하게 비춤으로 마음이 숙연해지는 효과를 연상케 했다. 첼로 연주곡 주기도문에 맞춰 전도자와 여인이 함께 춤을 추는 부분에서 중앙 상부에서 일자로 내려오는 조명으로 천계를 연상케 하는 판타지 느낌을 표현하였다.

[사진 3-13] 3장 조명의 변화



3장에서는 밝은 톤의 여러 가지 조명을 사용해 분위기에 따라 점점 추가하여 따뜻한 분위기의 조명을 사용했다. 녹색과 적색을 더하며 정열적인 느낌과 밝은 에너지를 내포했다. 이런 조명 사용을 통해 극적인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강조되기도 한다. 조명의 변화에 따라 무대 분위기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도와 줄 수 있다.

[표 3-6] 색채조명에 따른 표정 및 감정

색상	일반적인 감정	표정 및 감정
적색	분노, 공포	정열적, 야망
등색	기쁨, 초조	활동적, 정의
황색	기쁨, 희망, 유쾌	광명, 행복
녹색	만족, 안심, 상쾌	신선, 젊음
청색	상쾌, 비애, 불안	정적, 신비, 냉담
자색	고뇌, 불만족, 불안	고귀, 우아, 음울

3.3.6 무대 공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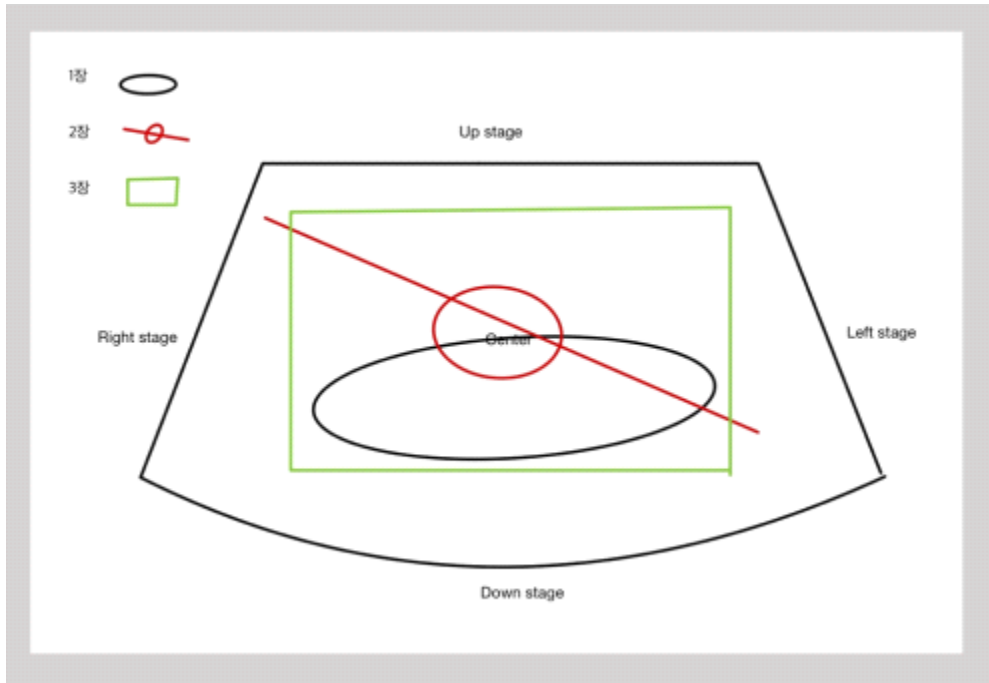
무용은 공간을 활용하는 예술이며, 안무가는 그 공간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공간에 느낌을 붙여넣을 수 있다. 무대 위치에 따라 느낌이나 전달되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무용수 자신도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감정선이 달라질 수 있다. 작품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의도된 무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은 양재 M 극장에서 시연되었다. 무대는 프로시니엄 형태이다. 무대의 구분은 <표 3-5>과 같이 구분한다. 이 작품에서 동선은 <그림3-14>와 같이 사용하였다. 1장에서는 Center를 중심으로 DSC를 사용하였고, 2장에서는 USR에서 시작하여 DSL로 연결하는 사선으로 이동 후 중앙을 사용하였다. 3장에서는 5명의 무용수가 등장하므로 대각선의 대칭으로 사용하나 전체 무대를 사용하였다.

[표 3-7] 무대 위치

USR Up Stage Right	USC Up Stage Center	USL Up Stage Left
CSR Center Stage Right	CS Center Stage	CSL Center Stage Left
DSR Down Stage Right	DSC Down Stage Center	DSL Down Stage Left

[그림 3-1] 무대 사용



[표 3-8] 무대 공간 사용

장구분	무대 공간 사용	기대효과
1장	DSC를 중심으로 Center를 주 무대로 사용하였다.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공간이다.
2장	USR에서 시작하여 DSL로 대각선을 사용하고 Center로 진행하는 동선을 사용해 무대공간을 사용하였다.	대각선이 주는 원근감을 활용해 길과 여정을 나타내었다.
3장	앞부분에 십자가 천을 놓고 Center를 중심으로 넓은 부분을 활용하였다.	십자가 천이 기저선의 역할을 하여 중심이 되고 5명의 무용수가 넓게 사용함으로 확장의 의미가 있다.

IV. 작품 분석

제목 : 그 사랑 (That Love)

안무 및 연출 : 이 연 호

출 연 : 이 연 호, 심 은 희, 박 언 주, 이 현 주, 김 진 희.

음 악 : 1장 spell-TAD(현대무용음악), The hill of the wind(바람의 언덕)

2장 End Of An Era(작곡:Zack Hemsey), 첼로연주곡 주기도문.

3장 ‘나를 일으키시네’ (작곡, 작사:이권희) 가스펠

발표 일시 : 2023년 11월 20일 (월) 오후 7시

발표 장소 : 양재 M 극장

작품 시간 : 총 14분 14초

오 브 제 : 검은 망사 천, 붉은 천, 불빛나는 비치볼, 나비핀.

4.1 제 1장 : 병든자의 고통과 세상의 허무함

4.1.1 주제 및 내용

현상학적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 권력, 명예가 최고라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사는 삶을 산다. 그러나 찾아온 병으로 돈, 권력, 명예가 모두 사라지고, 분노하고 좌절하며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되며 ‘희망을 잃어버림’이 1장의 주제이다.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이 그려진다. 그들은 돈, 권력,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던 한 여인이 등장한다. 이 여인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그저 현재에 만족하며 살았던 여인이다. 그들은 서로 친구 같으나 경쟁과 시기가 있는 묘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다가 여인은 돈, 권력, 명예를 다 가지게 되지만 그때 병이 찾

아온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돈, 권력, 명예를 다 빼앗아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고 친구도 주변의 사람도 없다. 그 상실감은 분노로 나타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지만 이내 좌절과 우울함으로 가게 된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1] 이동 경로 1-1

[사진 4-1] 이동 경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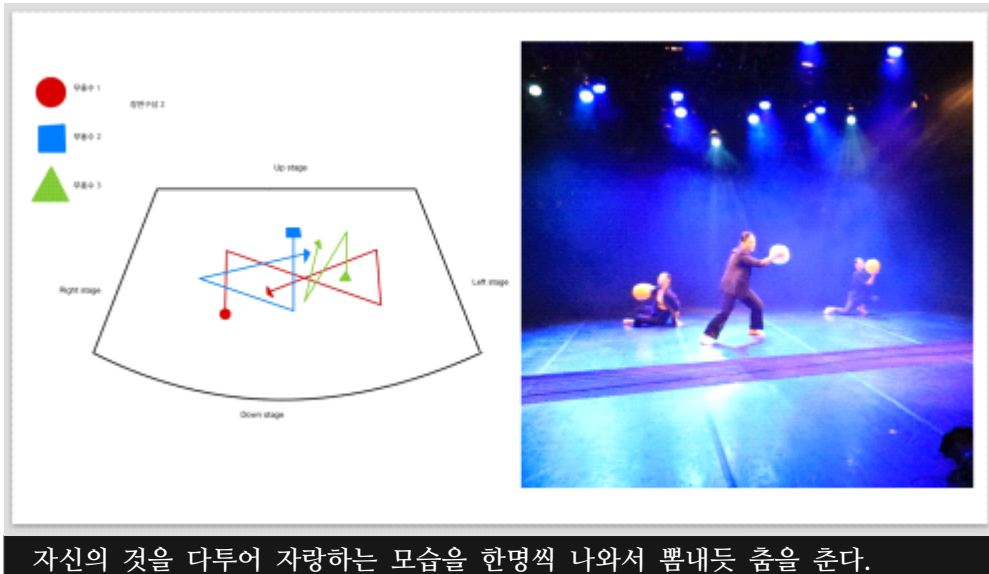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돈, 권력, 명예에 눈을 돌려 욕심껏 하나씩 가져간다.

[그림 4-1]은 도시의 길거리를 연상하는 무대에 무용수 1, 2, 3이 시작하여 무용수 1은 담담히 걷고, 무용수 2는 아주 천천히 걷고, 무용수 3은 뛰어서 횡단하다가 다 같이 멈추어 선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나타낸다.

[그림 4-2] 이동 경로 1-2

[사진 4-2] 이동 경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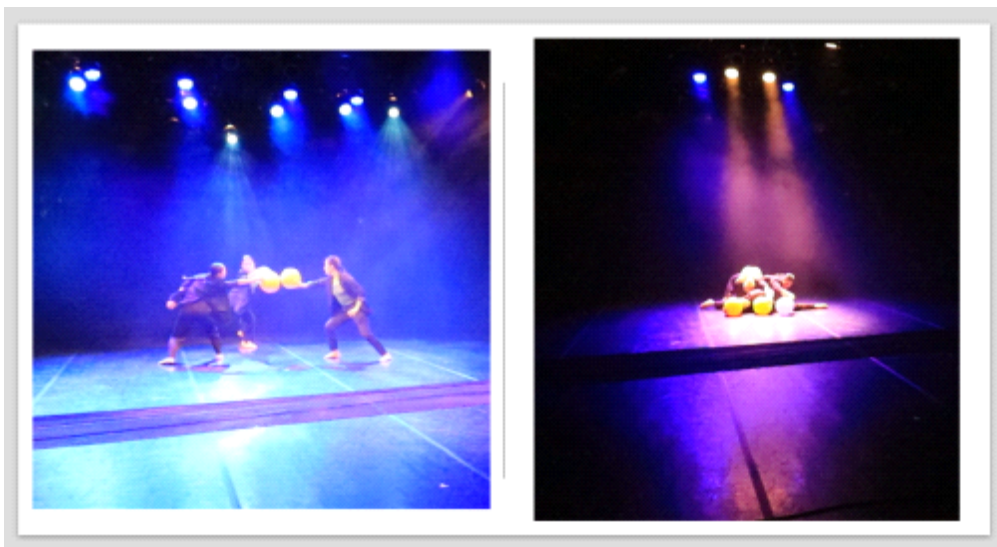


자신의 것을 다투어 자랑하는 모습을 한명씩 나와서 뽐내듯 춤을 춘다.

[그림 4-3]은 오브제 공을 발견하고 무용수들이 공을 한 개씩 들고 좋아한다. 각자 한 명씩 자신의 공을 자랑하듯 뽐내며 춤을 춘다. 돈, 권력, 명예를 가졌고 그것이 최고임을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 엉키듯 다투듯 한곳에 모인다. 이때 공이 한 무용수에게 집중된다. [그림 4-6]은 무용수 1에게 돈, 권력, 명예가 모두 들어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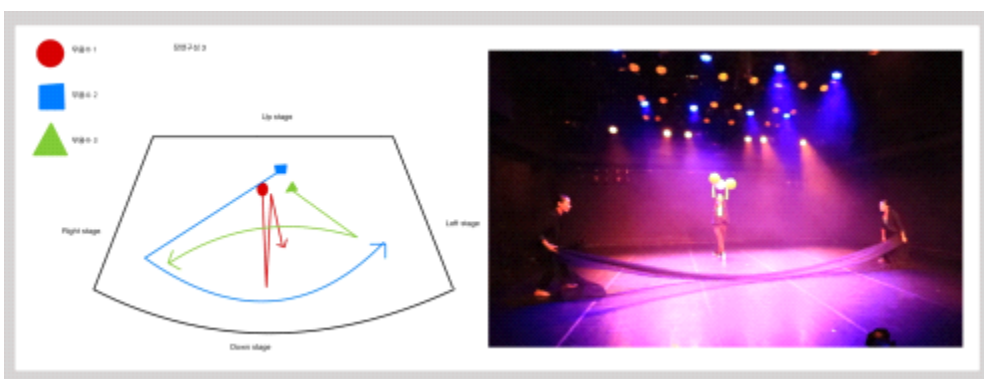
[사진 4-3] 이동 경로 1-2

[사진 4-4] 이동 경로 1-2



[그림 4-3] 이동 경로 1-3

[사진 4-5] 이동 경로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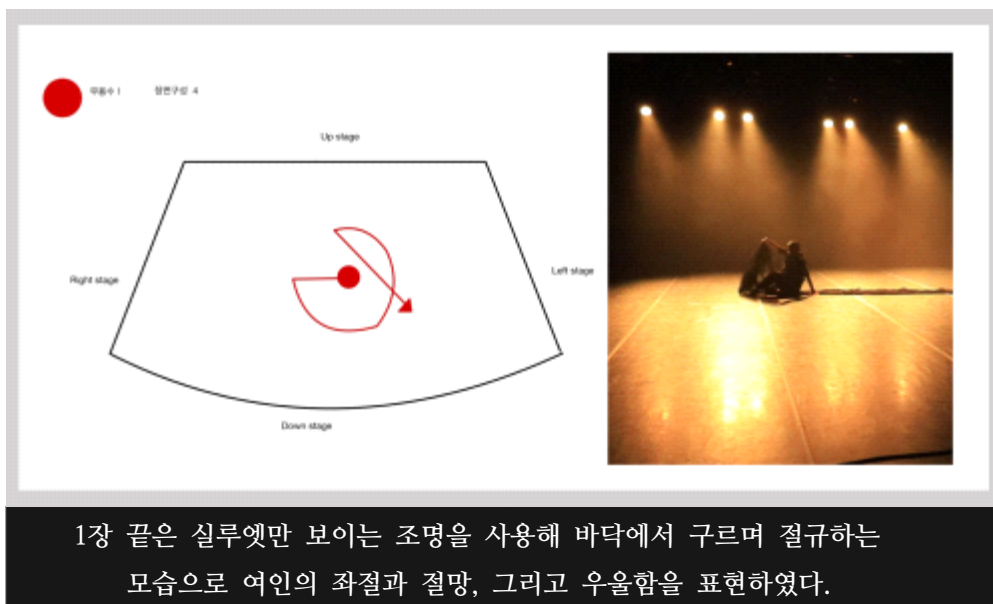


한 무용수에게 비치볼이 물리면서 돈, 권력, 명예를 모두 가진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무용수가 검은 망사 천으로 여인을 억압한다. 이것은 병으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4-7]은 검은 망사 천으로 무용수 2, 3이 양쪽으로 잡고 선다. 공을 든 무용수 1은 검은 망사 천을 경계하지 않고 비치볼을 잡은 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용수 2, 3이 망사 천을 크로스하여 무용수 1의 허리를 감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용수 1은 아직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육신의 병이 온 것을 상징한다. 그로 인해서 들고 있던 비치볼을 던져버리고 쓰러지게 된다. 그때 무용수 2, 3도 들고 있던 망사 천을 던져버린다. 이때 떨어진 비치볼을 무용수 2, 3이 서로 나누어서 가져가 버린다. 병으로 인해 돈, 권력, 명예가 모두 없어지고 친구도 없어진 것을 표현하였다.

[그림 4-4] 이동 경로 1-4

[사진 4-6] 이동 경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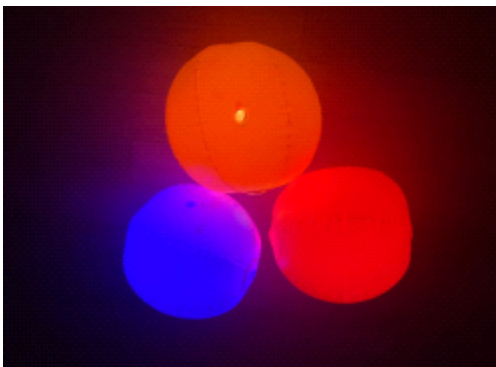


[사진 4-6]의 움직임은 바닥에서 이루어진다. 좌절을 표현하기 위해 바닥에서 구르는 움직임과 허리에 감긴 망사 천은 여전히 묶여 있어서 무용수 1이 움직이는 곳으로 따라다니게 된다. 망사 천을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동작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좌절하고 절규하며 망사 천을 몸에 두른 채 비통의 움직임으로 걸어가며 1장의 막을 내린다.

4.1.3 음악 및 오브제

1장의 음악은 현대 무용 음악을 전문으로 작곡하는 아소클에서 댄스 작품으로 작곡한 곡이다. ‘spell-TAD(현대무용음악)’과 이정표가 작곡한 ‘The hill of the wind (바람의 언덕)’을 연결하여 1장을 구성하였다. 도시적이고 차가우면서도 냉정한 분위기의 앞부분 spell-TAD와 바람의 언덕은 분위기 전환과 주인공의 비참한 심정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오브제는 빛이 나는 비치볼과 검정 망사 천을 사용하여 돈, 권력, 명예와 같이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오브제를 사용해 표현하였고, 검은 망사 천은 서서히 조여오는 환경을 검은색이 주는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의 색감을 더해 표현하였다. 비치볼을 중앙에 배치함으로 누구나 탐하기 쉬움을 나타내었고, 무용수들이 한 개씩 가지고 춤을 추어 나눔과 한 명이 가지게 되면서 돈, 권력, 명예가 한 명에게 집중됨을 나타내었다. 검은 천의 사용은 주인공 무용수의 허리를 감아 조이므로 억압, 자유롭지 못함을 표현하였다.

[사진 4-7] 불빛 나는 비치볼



[사진 4-8] 오브제 검은 망사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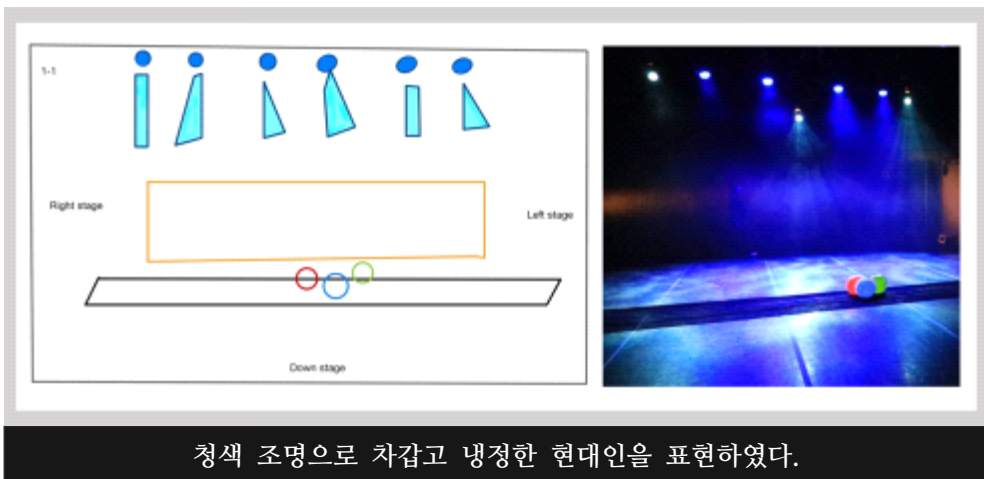


4.1.4 무대장치 및 조명

1장의 조명은 청색, 등색, 적색을 사용하였다. 불안한 현실과 냉담한 도시적 느낌을 청색으로 표현하였고, 적극적으로 탐욕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등색이 첨부되었으며, 적색의 정열적이고 야망적이며 그 안의 분노와 공포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심리적 색을 사용하므로 인간의 내면을 색채화하였다.

[그림 4-5] 조명 1-1

[사진 4-9] 조명 1-1



[그림 4-6] 조명 1-2

[사진 4-10] 조명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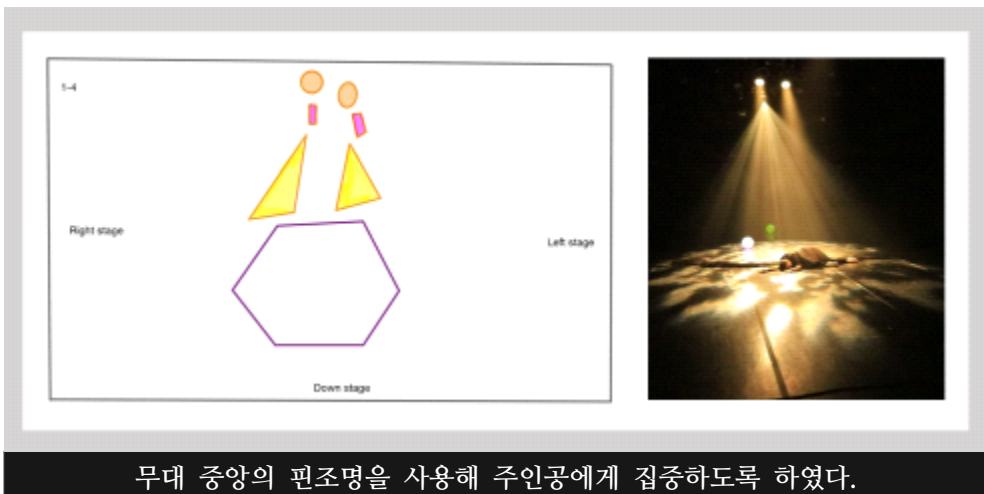
[그림 4-7] 조명 1-3

[사진 4-11] 조명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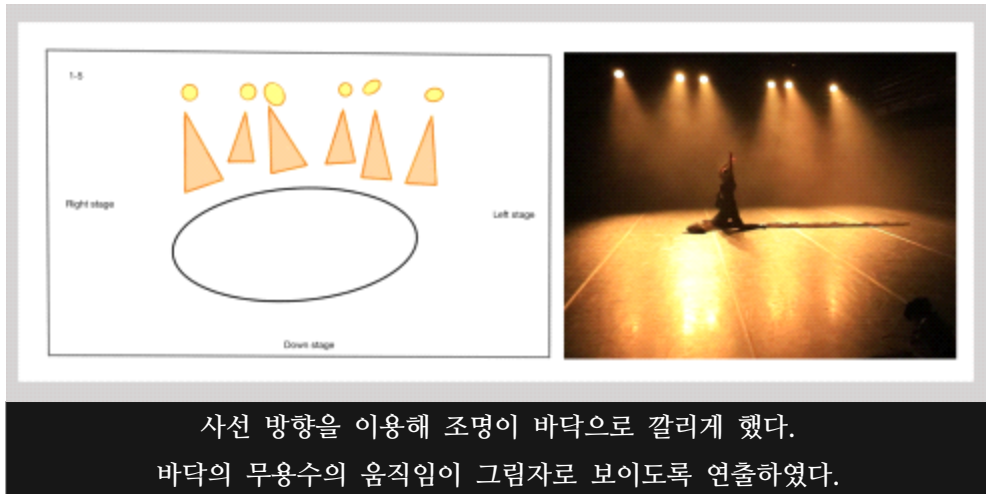
[그림 4-8] 조명 1-4

[사진 4-12] 조명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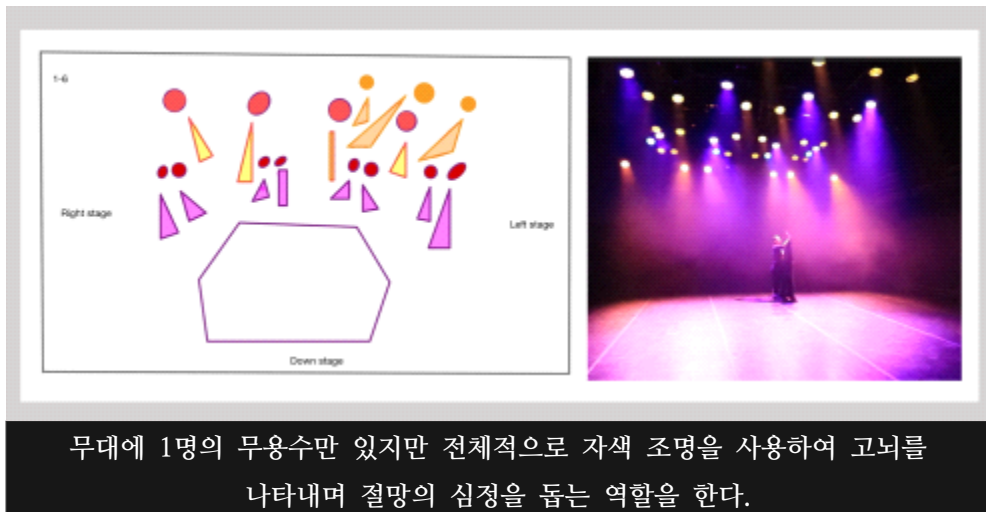
[그림4-9] 조명 1-5

[사진 4-13] 조명 1-5



[그림4-10] 조명 1-6

[사진 4-14] 조명 1-6



4. 2 제 2장 : 구원의 만남

4.2.1 주제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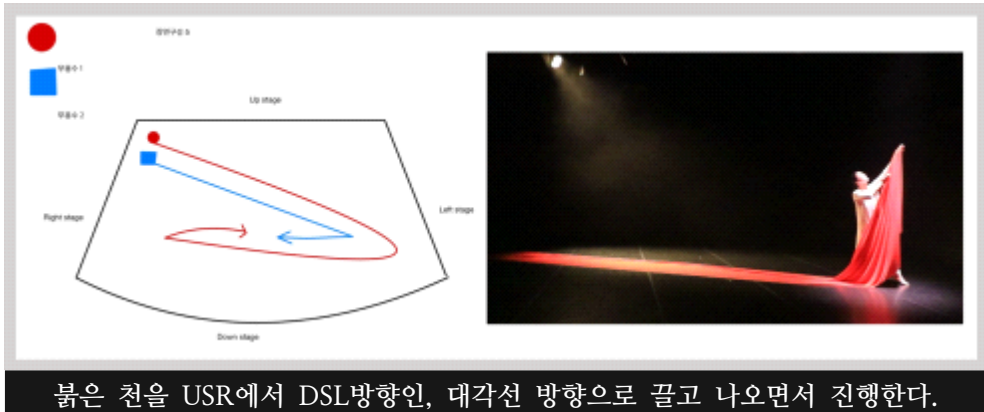
2장에서는 괴로워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을 그렸다. 한 전도자가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천을 들고나온다. 먼저 하나님을 안 전도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도의 삶을 산다.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여인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하였다. 2장에서는 그 과정을 그려간다. 여전히 검은 천을 두른 여인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을 찾고 찾는다.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며 병이 고쳐지고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받은 여인은 믿음의 삶을 배우고 알게 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 전도자와 함께 주기도문을 노래하며 2장 마무리가 된다.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무용수 2가 붉은색 천을 머리에 쓰고 끌면서 USR에서 DSL방향으로 등장한다. 붉은 천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 1분가량 후 무용수 1이 검은 천을 여전히 두른 채 붉은 천을 따라 등장하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은 표현을 한다. 천을 지나 해매다가 반대편에 서 있는 전도자를 보게 되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검은 천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벗겨진 천은 병에서의 해방, 죄에서의 해방을 뜻한다. 두 무용수가 십자가 천을 사이에 두고 반대쪽으로 진행하여 서로 가까워지면서 만나게 되며 함께 주기도문에 맞춰 춤추게 된다. 마지막은 서로 십자가 천을 어깨에 메고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십자가 천을 길게 늘어놓는다. 우리 삶에 십자가의 사랑이 펼쳐짐을 상징하였다.

[그림 4-11] 이동 경로 2-1

[사진 4-15] 이동 경로 2-1



[사진 4-16] 이동 경로 2-1

[사진 4-17] 이동 경로 2-1





4.2.3 음악 및 오브제

2장 음악은 End Of An Era(작곡:Zack Hemsey)와 첼로 연주곡 주기도문 앞부분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한 시대의 종말’이란 뜻을 가진 곡, End Of An Era은 2011년 잭 햄시가 작곡하였는데 기하학적인 앞부분의 전개가 끝난 후 8 카운트마다 고조되는 듯한 연결은 긴장감을 더하고 웅장함이 더해지면서 점점 상승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구원으로 가는 여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그 곡이 끝나갈 즈음 첼로로 연주되는 주기도문이 나올 때는 모든 감정이 정화되고 평온하며, 안정감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감정선이 나온다. 두 무용수가 함께 연결하여 춤을 추는 것으로 전도자와 구원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찬양함을 나타낸다. 오브제로는 붉은 천을 사용하였다. 붉은색은 예수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색이다. 길게 늘어선 붉은 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희생,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상징한다.

[사진 4-19] 오브제-붉은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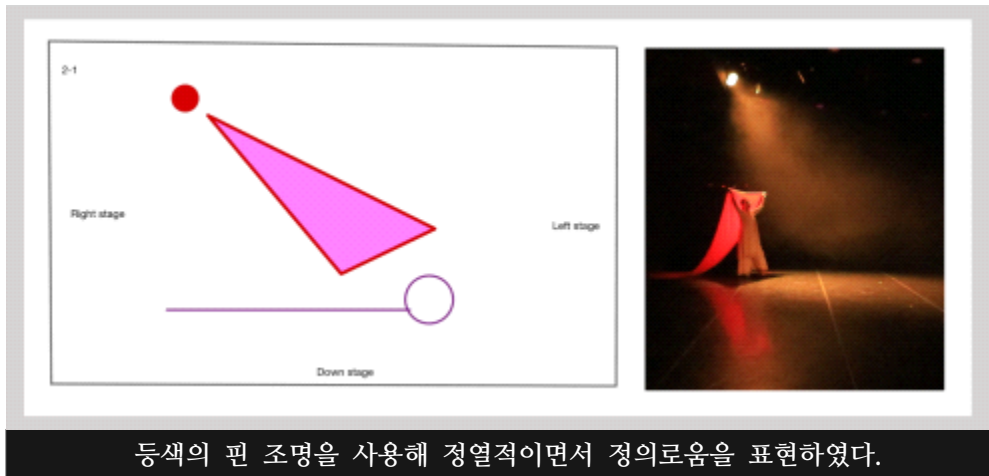


4.2.4 무대장치 및 조명

2장의 조명은 등색과 황색, 적색을 사용하였다. 십자가 천을 들고나올 때는 USR방향에서 등색의 핀 조명을 사용해 길게 늘어선 십자가를 강조하는 조명이 사용되었다. 앞부분으로 이동은 무용수 2에게 등색의 핀 조명을 사용함으로 기쁨과 활동적이고 정의를 나타내며 평화롭지만, 단호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무용수 2와 만나는 장면에서는 좀 더 확장된 조명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조명이 사용되었으나 퍼져있는 방향이 아닌 안으로 모이는 방향으로 조명을 사용하여 넓지만, 한곳으로 모이는 효과를 살려보려 했다. 또한 무용수 1, 2가 서로 만나는 장면에서는 뒤 조명을 사용해 실루엣으로 보일 수 있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연출하였으며, 주기도문을 함께 찬양할 때는 화려한 조명을 모두 사용해 화사하고 밝지만 두 사람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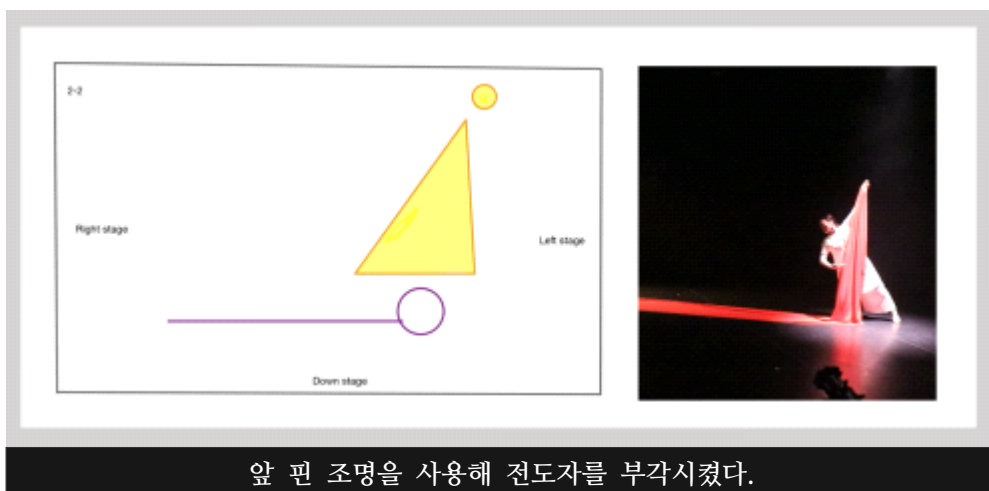
[그림 4-13] 조명 2-1

[사진 4-20] 조명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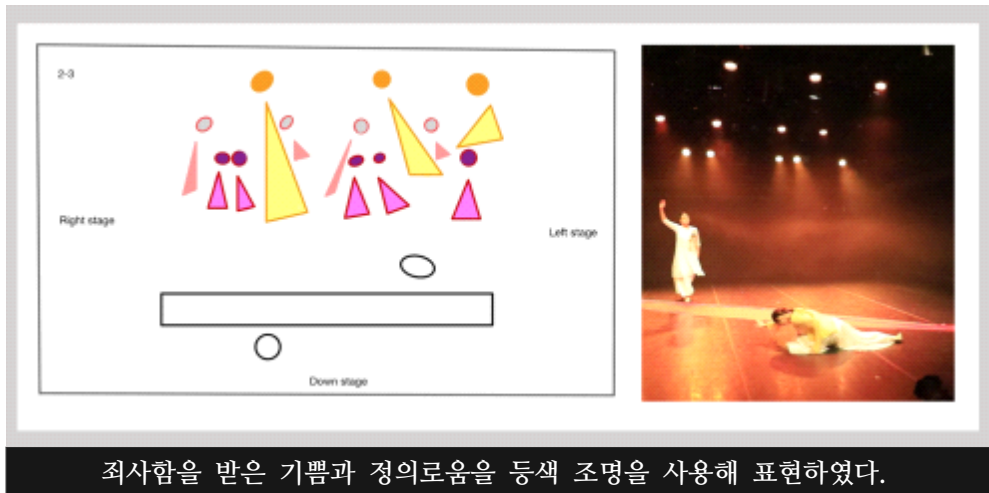
[그림 4-14] 조명 2-2

[사진 4-21] 조명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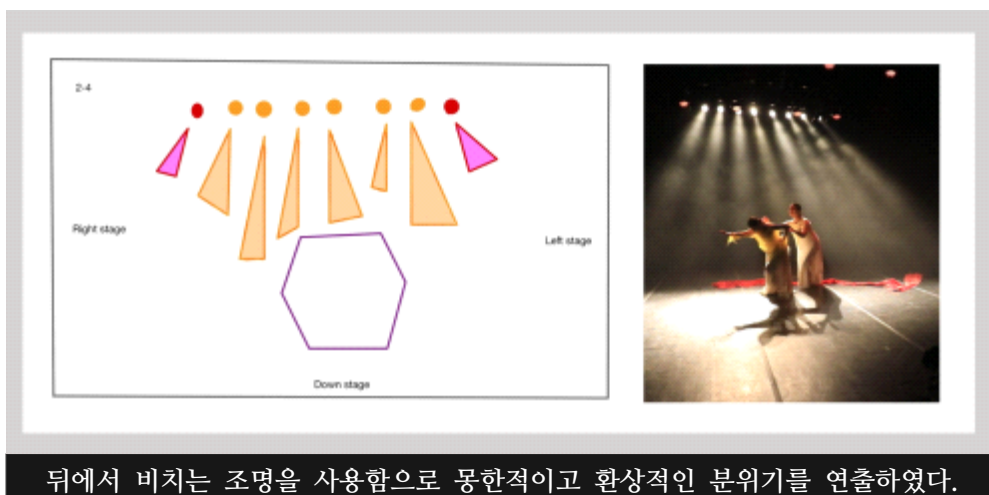
[그림 4-15] 조명 2-3

[사진 4-22] 조명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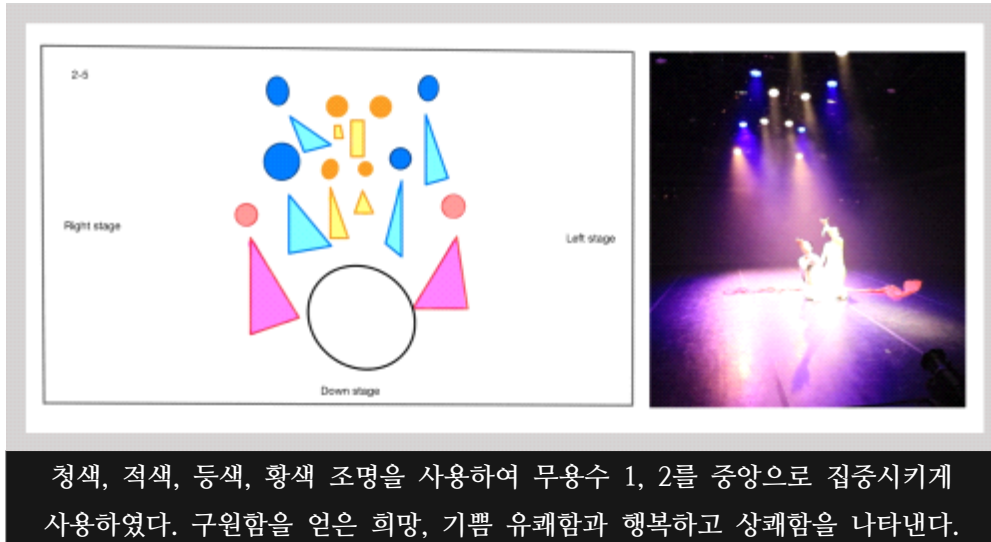
[그림 4-16] 조명 2-4

[사진 4-23] 조명 2-4



[그림 4-17] 조명 2-5

[사진 4-24] 조명 2-5



4.3 제 3장 : 십자가 그 사랑

4.3.1 주제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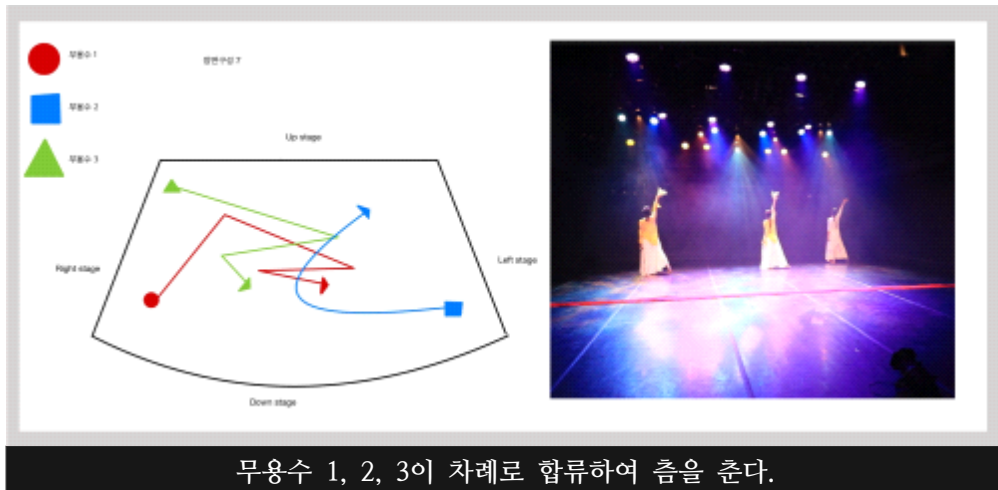
죄인 된 인간을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장면이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인이 절대자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노래하며 힘들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한다. 혼자였던 여인이 전도자를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그 힘들었던 시기를 돌아본다. 지금의 감사가 더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건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감격함을 가지고, 같은 감격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도시의 친구들이 떠난 부분과 대조적으로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나타낸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장에서 십자가 천은 Down stage 앞에 그대로 횡단하듯 펼쳐져 있다. 그 뒤로 무용수들이 등장한다.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여정의 길을 표현한다. 1장과 2장에서 3명의 무용수가 등장했다면 3장에서는 2명의 무용수가 더 추가 되어 5명의 무용수가 등장한다. 곡을 표현하기 위한 신체적 움직임이 많아지고 동선의 사용 범위도 넓어졌다. 창작 한국무용 형식을 사용하여 현대적 느낌의 한국무용으로 움직임을 구성하였다. 무용수 1이 먼저 시작하고, 그 후에 무용수 3이 함께 춤을 추다가 무용수 2가 합류하여 후렴까지 함께 춤을 추게 된다. 전도자의 역할이 무용수 2였으므로 변화된 여인과 그 내면의 사람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후렴이 지난 후 2절에서 무용수 4, 5가 합류하여 성도의 역할로 함께 춤을 추게 된다. 이때 무용수 1은 춤추는 여인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천을 따라 걸으며 힘들었던 옛날을 잠시 회상하고 그때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천을 끌어안는다. 그 후에 무용수 1이 합류하여 함께 춤을 추다가 여인들의 무리로 섞여 들어가고 전도자가 십자가 천으로 나오면서 목회자와 성도라는 교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대형으로 바뀌며 춤을 춘다. 마지막 부분에서 무용수 2가 십자가 천을 들어 올리고 그 천으로 무용수 1, 3, 4, 5가 차례로 십자가에 앉고, 기대어 곡을 마무리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인간 존재의 참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삶의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동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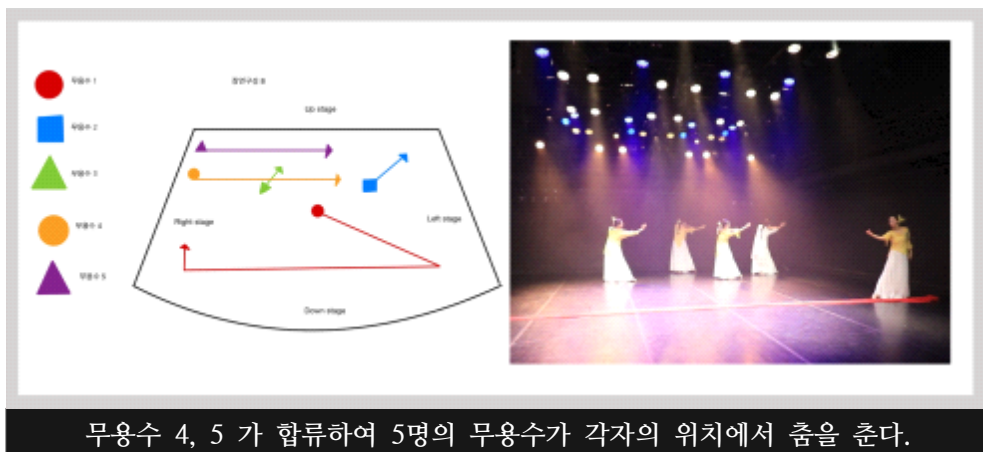
[그림 4-18] 이동 경로 3-1

[사진 4-25] 이동 경로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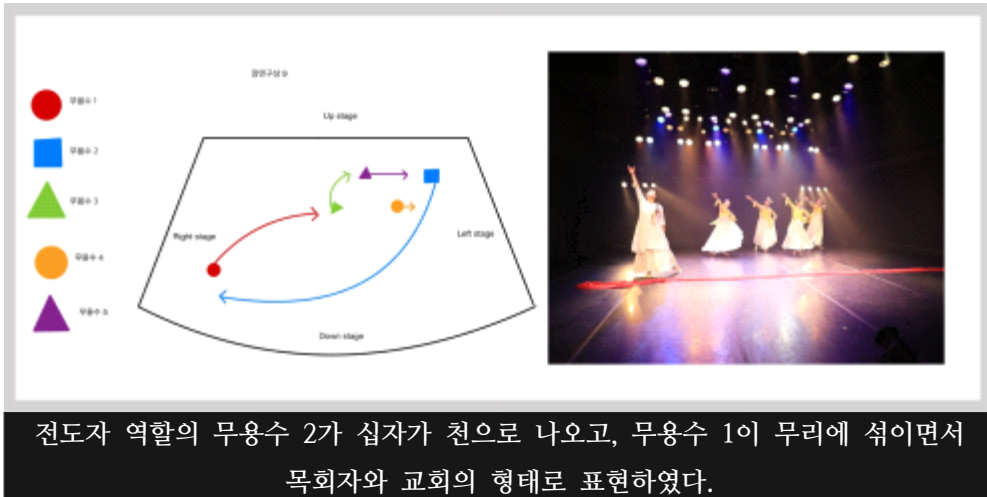
[그림 4-19] 이동 경로 3-2

[사진 4-26] 이동 경로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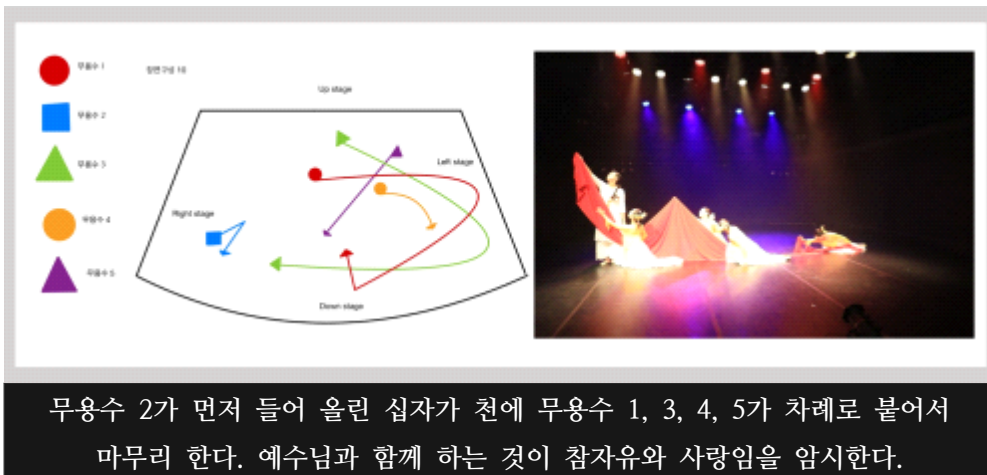
[그림 4-20] 이동 경로 3-3

[사진 4-27] 이동 경로



[그림 4-21] 이동 경로 3-4

[사진 4-28] 이동 경로 3-4



4.3.3 음악 및 오브제

3장의 음악은 이권희가 작곡, 작사한 가스펠, ‘나를 일으키시네’를 사용하였다. 가사가 있는 곡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나의 노래 들리나요. 가득 고인 눈물도 보이나요.
많이 힘들었죠. 주께 돌아오기가 세상 끝에 서 있던 나였기에

아픈 시간들 힘겨웠던 날들, 지쳐 쓰러진 나를 잡아 줄 이 없을 때
피 묻은 손이 나를 일으키시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분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내 눈물도 내 아픔도 모두 닦아 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오신 분.
하늘 보좌 다 버리고 날 위해 오신 분”.

힘들었던 옛날을 회상하고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격의 노래를 부른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청량한 보이스의 여성 싱어 목소리가 창작 한국 무용을 활용한 안무와 어우러져 표현되었다. 나비 모양의 핀을 사용하여 나비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사랑”을 상징화하였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며 나비와 하나가 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사진 4-29] 오브제 나비 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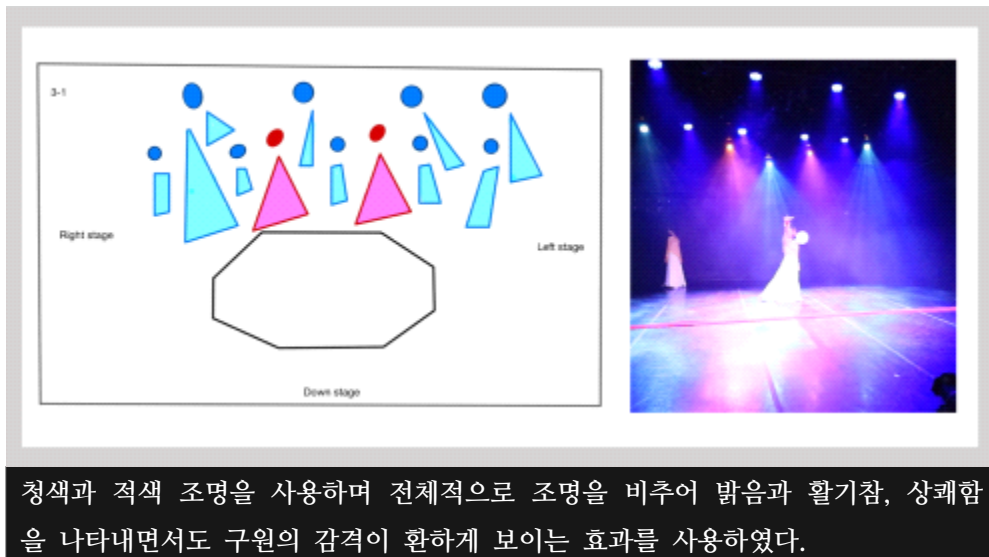


4.3.4 무대장치 및 조명

3장의 조명은 [그림 4-23] 처럼 청색과 자색을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넓은 범위의 조명을 사용하여 청색의 시원함과 감격의 청량함을 나타내고, 자색의 불안함이나 음울한 분위기로 이전의 삶을 회고하는 신을 더해지게 사용했으며 곡의 후렴과 곡의 절정으로 갈 때쯤 황색, 등색, 적색을 사용해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부분과 행복 등의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명을 사용했다.

[그림 4-22] 조명 3-1

[사진 4-30] 조명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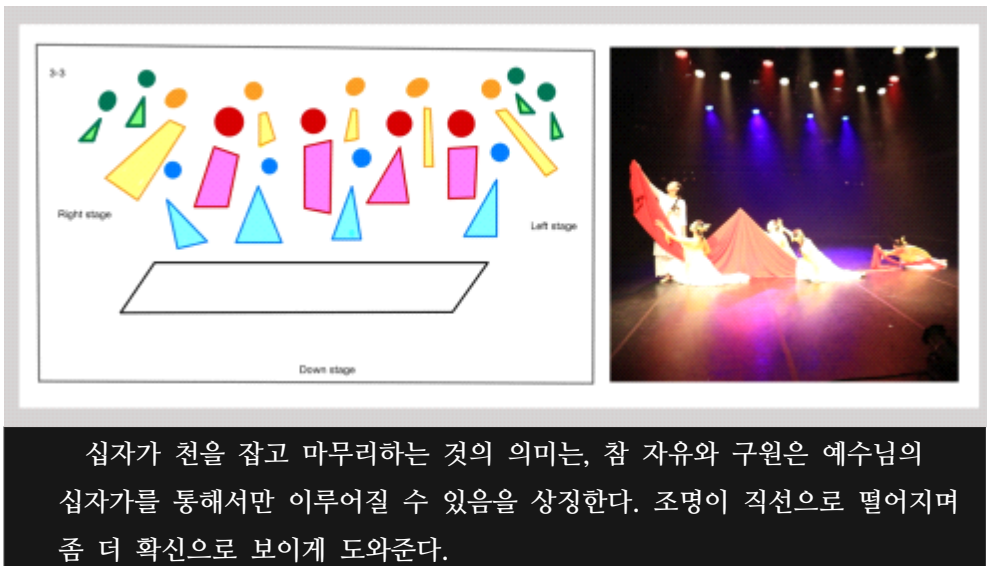
[그림 4-23] 조명 3-2

[사진 4-31] 조명 3-2



[그림 4-24] 조명 3-3

[사진 4-32] 조명 3-3



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에 대한 작품 분석 연구다. 이 작품은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인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였고,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자 그 의미와 구조를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바탕으로 죽음을 직면하게 된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주인공을 선정하여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끌어갔다.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은 스스로 창조해 가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하나님을 닮아 창조해 가는 능력을 부여하셨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인간은 피조물 중 가장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타락했음을 말하고 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던 인간은 ‘죽음’이라는 사망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인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말한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고 하였다. 진리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간은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구원으로 인한 인간의 변화는 질병으로부터 치료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죄 문제에서 해결되므로 참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의 회복” 그것은 예수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루어진다. 「그 사랑」, 작품을 통해 연구자는 “진정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주제를 담아 연구자의 이해와 기독

교적 관점을 시각화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 하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오브제, 음악, 의상, 조명, 시나리오, 연기 등, 여러 가지 부재가 있어야 하는 종합예술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통해 움직임을 구성하고 그 안에 감정과 감성을 담아내는 작업은 단순하지 않으며 더 많은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 되어져야 함을 배웠다. 보이지 않는 영성을 시각화하고 표면화해서 나타내는 작업은 절대 쉽지 않다. 영성을 현실로 옮기는 것은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행동 간의 간극을 만들 수 있고, 영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연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영적인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성을 부여한 기독교 무용은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의 하나이다. 영성이나 깊은 가치들을 예술로 표현하면, 이를 통해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생각과 감정을 비유적이고 아름다운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말씀과 기도로 창작된 기독교 무용 작품은 영성이나 가치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과 예술인으로 사는 삶을 동시에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 무용가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일깨워야 한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예술의 혼을 담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창작무용, 「그 사랑」을 작업하며 연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사역도 그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것을 느끼게 하는 작업이었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복음적 메시지를 담은 기독교 창작무용이 한편의 설교와 같이 효과적인 복음을 나타낼 수 있고, 설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문화권이나 나라에서 이미지나 상징적 움직임의 표현으로 구성된 작품은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작품의 연구와 안무가 필요하며 이것을 각 교회와 선교지에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을 바탕으로 무용을 전공한 전문인들의 배출이 필요하다. 기독교 무용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무용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인간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연구하여 더 깊은 영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창작 작품들이 나오길 바라며 교회와 기독교 안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복음 전파에 기독교 무용이 사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권석만. (2015). 『현대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서울: (주)학지사.
- 권석만. (2017).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주)학지사.
- 김균진. (1984). 『기독교조직신학』.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은수. (2016). 『무용음악의 이해』. 서울: 삼산각.
- 김종두. (2014).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사상과 현대인의 자아 이해』. 서울: 새물결플러스.
- 김창영. (2011).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 생명의 말씀사.
- 박연선 외 1인. (2007). 『색채용어사전』. 예림.
- 박영규. (1996). 『철학이 뭐꼬?』. 서울: 가람기획.
- 배경식. (2012). 『구원론-구원론의 본질과 다양성』. 대한기독교서회.
- 이윤경. (2014).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바탕으로 한 무용창작작품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장원. (2010). 무용공연에서 무대 조명의 활용방안. 『전기의 세계』, 59(2), 33.
- 조성훈. (2007). “실존적 의미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황다운. (2021). “실존주의와 인간 묘사-실존주의의 휴머니즘 관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2. 국외 문헌

케리 콕스(지여울 역). (2009).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 서울: 황소걸음출판사.

토마스 R.슈라이너(조호형 역). (2013). 『구원의 확신과 경주』. 사)기독교문서선교회.

J.Moltmann(전경연 외 1인 공역). (1973). 『인간』. 서울: 향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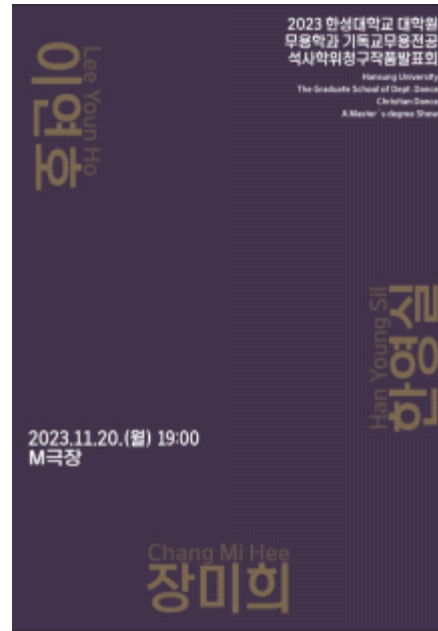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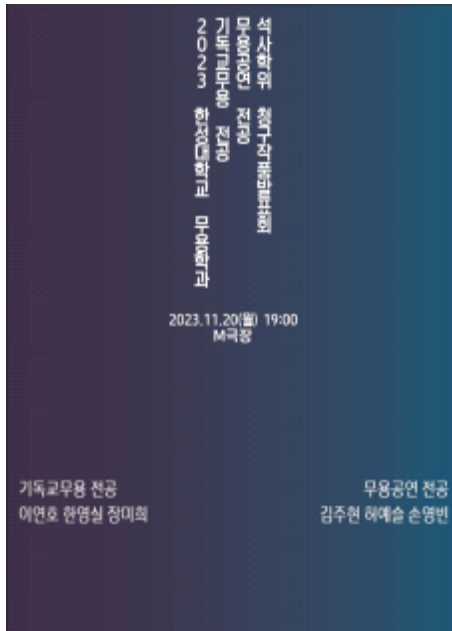
<https://ko.wikipedia.org/wiki/구원론>

부 록

1.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 품 명	그 사랑
일 시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
장 소	양재 M 극장
연출 및 안무	이연호
음 악	1장 spell-TAD(현대무용음악), The hill of the wind(바람의 언덕) 2장 End Of An Era(작곡:Zack Hemsey), 첼로연주곡 주기도문. 3장 ‘나를 일으키시네’ (작곡, 작사:이권희) 가스펠
출 연	이연호, 심은희, 박언주, 이현주, 김진희.
사진 영상	김지훈
주 최	한성대학교
소요 시간	14분 14초

2. 공연 프로그램



작품내용 ————— **그 사랑**
That Love
한무 이연호

인생의 의미를 물줄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게 된다.
달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질병에서 벗어나며 구원을 알게 된다.

이 작품은 인간의 병을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과정을 그렸다.

"인간은 스스로 아픔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과 참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작품이다.

출연

이연호

심은희 박연주 이연주 김창희

ABSTRACT

Christian Creative Dance A Study on 「That Love」

Lee, Yeon-Ho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search Christian creative dance,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work "That Love" to explore its meaning and structure. This work encapsulates the researcher's confession of faith and philosophy of life. The selection of the theme for the work began with contemplation about human existence. Humans are the only beings who, wanting to know their reason for existence, the meaning of life, and their own identity, seek to understand these aspects. Humans are beings who pose endless questions about existential meaning, essence, and destiny. However, one of the psychological issues that modern individuals, who have

forgotten these questions, experience is related to the existential conditions of human beings, such as death, loneliness, and meaninglessness. Many modern individuals fall into 'existential depression,' experiencing a sense of emptiness and meaninglessness without discovering the meaning of life.

Existentialism addresses the ultimate issues of death, freedom, solitude, and meaninglessness that individuals in modern society face. This concept suggests that by confronting these issues, individuals can actively choose life and discover true meaning. However, humans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are made perfectly. However, due to Satan's intervention, when humans commit 'sin,' their perfection is broken, leading to a separation from God. The consequences of that sin come in the form of 'disease, mental illness, death, poverty, war, natural disasters, etc.,' overwhelming humanity with an unbearable burden. To understand humanity, one must comprehend this foundational aspect arising from the relationship with God.

The researcher aims to contemplate the essence of human nature in finite life through this work. Existential psychotherapy, as a method for treating the psychological problems faced by modern individuals, emphasizes the acknowledgment of 'death.' Acknowledging the inherent condition of human existence, which is inevitable, is 'death.' By recognizing this fact, individuals can discover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ir own lives, overcoming emptiness and despair. However, that alone does not serve as the ultimate cure. Human beings, encountering the once-separated God, become beings who can truly enjoy freedom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life. Through this work, the researcher aims to convey the message that humans, as finite beings with limitations such as disease and death, can find resolution and redemption by encountering the Absolute, God. The purpose is to communicate the

gospel message essential for humans and make them realize this through an encounter with God.

The research procedure focused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performance titled "That Love," which took place at Yang-Jae M Theater on November 20, 2023, at 7:00 PM. The study involved exami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hristian creative dance and "That Love," analyzing the intentions, content, format, and structure of the performance. To analyze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at Love," the researcher utilized a performance DVD and photographic materials capturing the presentation at Yang-Jae M Theater on November 20, 2023.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is work approaches the concept of existential depression and salvation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through God. In the existential sense, existential psychotherapy was examined based on existential philosophy and focused on literature research related to the human perspective and soteriology from a Christian standpoint. This included monographs, theses, academic journals, the Bible, and online sources.

I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at Love," the work aims to depict that the only way to overcome human limitations is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Humans cannot overcome pain on their own; the theme of the work is knowing that salvation and true freedom can only be obtained through the vicarious death, namely the crucifixion blood, of Jesus Christ, who is both true God and true man. Humans can resolve ultimate existential issues such as 'death, freedom, loneliness, and meaninglessness' through encounters with the Savior and come to understand themselves. The main theme of this work is the expression of gratitude and love for Jesus Christ. The composition consists of a total of

three parts. Chapter 1 depicts the pain of the sick and the emptiness of the world. Living contentedly in reality, when greed is added, one becomes entangled in the trap of illness and death, experiencing frustration and despair. Chapter 2 portrays confronting salvation, presenting step-by-step scenes of encountering the Savior, Jesus. Together with the evangelist, the performers offer praise through the Lord's prayer. Chapter 3, with the song 'The Cross, That Love' confesses and praises the love of Jesus. God's work of human salvation stems from His boundless love, making us aware that God is love itself. Human existence is understood as being separated from God, an existence that cannot be explained.

【Key words】 Existential Depression, Biblical Humanity, Redemption